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새해 금융 목표,  
뱅크오브호프와 설계하세요!  
FDIC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 영화가 다시 불붙인 ‘이승만 재평가’ 논쟁

윤 대통령 “역사 올바른 인식 기회”  
박민식 등 여권 인사 앞다퉀 인증샷  
일부 연예인 인증샷에 댓글 공방도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엔딩 크레딧이 서서히 올라갔다. 3열에 앉은 한 70대 남성이 뒤돌아 박수를 유도하자, 극장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체 89석 규모의 영화관은 평일 점심 무렵인데도 75명의 관객이 자리할 정도로 붐볐다.

이날 극장을 찾은 김광수(72)씨는 “이 시간대 자리가 거의 남지 않아 겨우 예약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 업적이 많아 젊은 사람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50대 박모씨는 “이 전 대통령이 IT 강국을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그건 김대중 아이디어 아니냐”며 “(애곡이)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의 포스터. 가수 나열은 이 영화를 관람한 후 인증의 의미로 영화 포스터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일부 네티즌들의 악플 세례를 받는 등 논란이 일자 댓글 창을 폐쇄했다. 반면에 나열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나도 영화 관람에 동참하겠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나열 인스타그램 캡처]

이 전 대통령을 재평가한 ‘건국전쟁’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농지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하고 세간의 부정적 평가를 반박하는 데 초

점을 맞춘 다큐멘터리다. 13일 기준 누적 관객 수는 32만 명,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내 ‘건국전쟁’ 관람 열풍이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권 주류가 4·10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재조명에 집중하면서 예비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영화 관람 인증과 감상평 쓰기에 뛰어 들었다. 설 연휴 동안 정진석·안철수·박수영·김미애·김영성 등 현역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앞다퉀 관람 후기를 남겼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영화를 본 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이 전 대통령을 평가했다. 또 13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전쟁’을 두고 참모들에게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기회”라고 호평했다.

이영근·이아미·심세롬 기자  
▶ 5면 ‘이승만’으로 이어집니다

워싱턴 물가상승률 3.6%  
2개월 새 0.5% 상승

워싱턴지역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13일(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워싱턴 지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3.6%, 작년11월 이후 0.5% 상승했다.

이는 전국평균 3.1%보다 0.5% 포인트 높은 것이다.

CPI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를 기록한 후 점점 하락해 작년 6월부터 3%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 2%대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러들고 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전년동월 대비 3.9%, 전월 대비 0.4% 각각 상승하면서 시장예상치 3.7%, 0.3%를 능가했다. 이중 주거비가 물가상승 원인의 2/3를 차지했다.

주거비가 전월 대비 0.6% 올라 상승세가 지속되며 1월 CPI 상승분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주거비는 CPI 가중치의 35%를 차지해 CPI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옥채 기자

## 국민 절반, 바이든 문서유출 불기소에 “불평등 특별대우”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 유권자의 과반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은 기소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불기소된 것에 대해 법무부의 이중 잣대에 따른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특검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 9~12일 1천23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는 특검 수사와 관련, ‘현직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답했다.

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29%가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4%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때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이 믿을 만하다고 답했다.

로버트 허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의 불기소 사유를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소시 자신을 ‘악의가 없는,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46%는 이런 특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81)의 고령 리스크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7)보다 크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전체의 78%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3%만 같은 답변을 했다.

앞서 로버트 허 특검은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이중적 정

의 시스템과 위협적이며 선택적인 기소가 이제 증명됐다”면서 이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문서 유출 혐의로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가상 양자 대결 질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37%)이 바이든 대통령(34%)보다 3%포인트(오차범위 ± 2.9%포인트)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 응답자의 25%, 무소속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각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재확인됐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301-279-6960  
원장 Dr. 김동국, D.C.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야기 플랜지모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 메디케어

무료  
상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 (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 인재근도 물갈이... 야당내 “친명도 험지가라” 불만 속출

86그룹이 따르던 김근태의 부인

더불어민주당의 ‘물갈이 공천’ 시계가 빨라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현직 의원을 직접 접촉하며 불출마 의사를 타진하면서다.

이 대표는 최근 3선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을 따로 만났다. 인 의원은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으로 옛 GT계(김근태계)의 상징적 인사다. 한때 학생운동권 출신 86그룹 대부분이 김 전 의장을 따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인 의원의 불출마 의사를 듣고 발표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13일 언론에 “인 의원이 먼저 요청한 자리였으며, 이 대표가 불출마를

권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본격적 물갈이의 서막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전략공관위 소속 의원 등이 여러 차례 ‘이번에는 공천이 어렵다’며 인 의원에 불출마를 권했다”며 “압박이 끊이지 않으니 이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조언을 드렸을 뿐 당 차원의 압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면담에서 GT계 전직 의원을 도봉갑에 공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에서는 다른 인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2019년 ‘이재명 지지기 범국민대책위’에 몸담았던 친명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에서 윤희숙 진보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연합뉴스]

인사인 김남근 변호사의 도봉갑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이 대표는 문학진 전 의원을 포함한 복수의 전직 의원에게 전화를 걸

어 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공지문을 통해 “새로운 후배들에게 정치입문의 길 터달라”는 당부의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당내엔 물갈이의 잣대에 대한 불만도 적잖다. 한 수도권 의원은 “세대교체나 물갈이가 필요한 건 맞으나, 그 잣대가 친명계 현역에겐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이 대표가 제 식구만 챙긴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친명·친문’ 동시 희생론’도 제기된다. 범(汎)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수와 관계없이 경쟁력이 있는 친명과 친문의 핵심 의원을 민주당이 가장 악세인 부·울·경(부산·울산·경

남)과 충청·강원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선당후사, 이재명 대표가 나서고 측근 친명이 먼저 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인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 “정식 공천심사 과정은 아니고, 이 대표가 정무적 판단으로 불출마를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다”며 “중·성동갑은 이미 전략지역으로 선정됐다. (공관위가 아닌) 전략공관위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강보현 기자

## 조국, 신당 창당 선언... 여당 “후안무치, 반성부터 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자신의 고향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고향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도 부산 출마 의사를 묻자 “윤석열 정권 대 반(反)윤석열 정권 일대

일 구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지역구 출마나 비례연합정당 등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당선자 배출이 주된 목적이라는 의미다. 21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따로 나선 열린민주당이 강성 친문 지지층을 흡수해 최강욱 등 3명의 당선자를 냈다.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 정당 합류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이 어떤 결정할지 신경 쓰면

서 행보하지 않겠다”면서도 “최후에 어떤 일이 이뤄질지는 지금으로는 제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정권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로 또 같이”(정청래 최고위원)라는 반응과 “조국 출마 자체가 민주당에겐 중도층 이탈 요인”(핵심 당직자)이라는 반응이 교차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공모와 청와대 검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판 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추진단장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 신당은)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 승리에 도움이 되지는 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같은 삶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만든 현 선거 제도”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위선과 불공정에 대한 반성과 자숙”, 유승민 전 의원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 김성한 “윤 대통령, 트럼프 집권해도 한달 내 적응... 케미 잘 맞을 것”

(전 국가안보실장)

“윤 대통령, 센사람 자기편 잘 만들어 트럼프도 한미일 협력 깰 이유 없어 올해 북한 도발 평강히 조심해야”

“연평도 방식”의 민간 살상이 포함된 국지전 아니면 ‘천안함 방식’(군 공격)의 군사 도발 둘 다 가능하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연내 북한이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조야의 우려와 관련해 “올해 평강히 조심해야 한다. 북한이 확전을 안 시키면서도

한국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시나리오는 널려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후 중앙일보와 만난 김 전 실장은 “북한 입장에서 한국군만 원점 타격하길 원하겠지만, 우리 측 접경지역엔 군과 민간인이 섞여 있어 ‘핀포인트’가 쉽지 않다”며 “대통령실에 있을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 및 대응 시나리오를 100여 가지 만들어 봤다”고 덧붙였다. 그의 언론 인터뷰는 지난해 3월 퇴임

후 처음이다.

김 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상당히 브릴리언트(총명)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케미’도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센 사람과 1대1로 붙어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장기가 뛰어나 (트럼프 재집권 시) 거의 한 달 내로 적응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5000억원의 방위비 분담 압박해 오면 윤 대통령은 ‘까짓 거 해주자. 대신 경제



김성한

안보 등에서 2조~3조원 받아내면 된다”고 할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지만 전제는 한·일 공조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해 끌고 나가고 한·일은 ‘무임승차’하는 건 안 되며, 말 그대로 3국이 정삼각형 비슷하게(비슷한 책임과 역할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국 관계와 관련해 “중국 압박의 속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3국 협력이 제대로 작동되면 손 안 대고 코 풀 기회가 온다”며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한 트럼프가 3국 협력을 약화시킬 이유가 없다”고 전망했다.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논란 발언에 대해 “나토 회원국은 우리 기준에서 보더라도 국방비를 너무 안 쓴다”면서 “그 메시지는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단단히 각오하라’는 것인데 방점은 앞에 찍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핵 동결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미 언론 보도에 대해선 “비핵화를 한다는 전제에서 동결해야지, 비핵화 없이 동결만 한다고 보상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영구·강태화 특파원

**워싱턴 날씨 (°F)**

15일(목)	50~37	18일(일)	50~32
16일(금)	46~36	19일(월)	50~33
2월 14일(수)	45~29	20일(화)	55~37
17일(토)	46~2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 전 검사장, 모기지 사기 유죄 판결

〈볼티모어〉

최대 30년 징역형도 가능  
모스비 측, “정치 보복” 주장

메릴랜드 모스비(사진) 전 메릴랜드 볼티모어 검사장이 허위 모기지 사기 혐의로 배심원 유죄평결을 받았다.

소송 관할지는 애초 메릴랜드 볼티모어 연방지방법원이었으나 각종 언론 보도로 배심원 편견을 우려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린벨트의 연방지방법원으로 옮겨졌다.

연방대배심은 2022년 1월 모스비 전 검사장을 위증 및 허위 모기지 신청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연방 검찰은 모스비 전 검사장이 2020년 플로리다 소재 주택 2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모기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부 은퇴연금기금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인출 자격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메릴린 검사장은 2015년 흑인 비무장 청년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에 대응해 6명의 경찰관을 입건하고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을 단행한 사실에 대한 연방검찰의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반박해 왔으나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스비 검사장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은퇴 연금기금으로부터 각각 4만달러와 5만달러를 인출을 요청했는데, 경제적 고통을 허위 증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스비 전 검사장 연봉이 25만달러에 이르며 팬데믹에도

결코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의 두 주택 구입시 49만 500달러와 42만8400달러 융자를 얻는 과정에서 연방 소득세 미납액이 있으며 연방국세청(IRS)로부터 4만 5022달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남편인 닉 모스비 볼티모어 시티 의회 의장이 피고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모스비 전 검사장은 남편으로부터 5천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위증죄 두 건은 건당 각각 최대 징역 5년형, 모기지 서류 허위 작성 혐의 두 건은 건당 최대 30년형이 가능하다.

김옥채 기자

##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가족 이민	1	2015년 2월 8일 (2015년 1월 1일)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2A	2020년 6월 22일 (2020년 2월 8일)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일)
	2B	2015년 11월 22일 (2015년 10월 1일)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3	2009년 10월 1일 (2009년 4월 22일)	2010년 3월 1일 (2010년 3월 1일)
취업 이민	4	2007년 6월 8일 (2007년 5월 22일)	2008년 3월 1일 (2008년 3월 1일)
	1	오픈 (오픈)	오픈 (오픈)
	2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1월 15일)	2023년 2월 15일 (2023년 2월 15일)
	3	2022년 9월 8일 (2022년 9월 1일)	2023년 2월 1일 (2023년 2월 1일)
	4	2020년 9월 8일 (2020년 9월 1일)	2020년 12월 15일 (2020년 12월 15일)
5	2019년 12월 1일 (2019년 5월 15일)	2020년 1월 1일 (2019년 9월 1일)	
	오픈 (오픈)	(오픈)	

\*괄호 안은 2024년 2월 우선일자, 자료: 국무부

##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전진

국무부, 3월 비자 블러틴 발표  
시민권자 기혼자녀 큰 폭 전진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표 참조>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전진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8일에서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넘게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가량 전진했으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4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전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하는 모습이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전진했다. 김은별 기자

## 페어팩스 경찰 '원더우먼 올가미' 도입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볼라랩(BolaWrap-사진) 800여개를 구입해 모든 순찰 경찰관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0명 정도의 경찰관에게 볼라랩 교육을 시키고 실전에 이 제압무기를 사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매우 만족



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볼라랩은 영화 '원더우먼'에서 나오는 '진실의 올가미(Lasso of Truth)'나 배트맨의 '유틸리티 벨트'와 유사한 도구로, 용의자를 부상없이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게 한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기자회견과 시연회를 통해 "경찰관이 볼라

랩 버튼을 누를 경우 포승줄이 날아가서 신체접촉 없이 용의자의 상체와 발목 부위 등을 결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테이저건 등을 대체할 결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록 라이트 형사는 시연회를 통해 작은 볼라랩 기계를 발사해 상대방의 무릎이 포승줄에 묶이는 장면을 보여줬다. 녹색 레이저 불빛이 상대방의 무릎 지점을 가르킨 후 총성과 함께 순식간에 무릎에 포승줄이 감겼다. 볼라랩의 최대 사거리는 25피트다. 김옥채 기자

## 김인철 재향군인회장 "재선 확실시"

17일 선거 및 취임식 예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동부지회의 차기 회장 선거에 김인철(사진)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제9대 회장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선관위원회는 지난 3일, 김 후보의 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아 9대 회장 후보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한민국재향군인회국제협력실에서 실시하는 입후보자 심사를 위해 김 후보의 서류들을 본회에

송부한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인철(79) 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평도 해병대 중대장으로 복무 후 대위로 예편했다. 신아일보 기자, 한국의료보험공단 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0년 1월 도미해 전자수리 및 컴퓨터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했다. 현재 버지니아 페어팩스 시티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오는 17일(토) 오전 9시, 서울장로교회서 실시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34명의 대의원 동의를 얻어 회장에 당선되면 9대 회장으로서 취임하게 된다. 김윤미 기자



"한국 풍습 즐기며 설날 잔치 했어요" 맥클린 한국학교(교장 이은애)가 지난 10일, 설날 잔치를 열어 웃놀이, 제기 차기 등 전통놀이와 세배 법을 배우며 설 정취를 만끽했다. 이은애 교장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한결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날잔치를 가졌다"며 "특히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 하며 전통놀이를 즐길 기회가 거의 없는데 한국학교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자긍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Aetna, National Western Life, Sun Life of Canada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 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융자
- 오퍼마켓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 FAFSA 대란 신청률 절반 ‘뚝’

개정 작업 예정보다 늦어  
작성 못 마친 지원자 속출

개정판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의 데이터 오류 수정작업으로 UC와 캘스테이트(CSU)가 대학 등록일(SIR)을 5월 15일까지 연장한 가운데(본지 2월 8일자 A-4면), FAFSA 신청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대입 지원자의 재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FAFSA의 개정판이 지난 1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올가을 대입 지원자들의 FAFSA 신청률이 예년의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 이 기사는 보도했다.

매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던 FAFSA는 지난해 신청서의 문항을 대폭 간소화시키는 개정 작업을 벌였으나 예정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올 1월 중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대입 지원서를 제출하고도 FAFSA를 작성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연방 교육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립대학성취네트워

크의 통계를 인용해 1월 말 현재 미 전역에서 약 70만 명의 지원자들이 FAFSA를 제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약 150만 명보다 감소한 수치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역시 지난 2월 2일까지 FAFSA를 제출한 대입 지원자는 전체 고교 졸업생의 16.1%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이상 감소한 규모다. 한 예로 매년 대입 지원자의 100%가 FAFSA를 신청했던 LA통합교육구 소속 다운타운 매그

닛의 경우 지난 1월 26일 현재 졸업반 학생의 3분의 1만이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패서디나 통합교육구 산하 고등학교들도 평소 전체 졸업생의 75%가 FAFSA를 제출했지만, 올해는 평균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80%를 기록했던 유어 고등학교의 경우 14%만, 마살렌 더멘틀고교는 75%에서 28%만 제출했다.

각 대학 카운슬러들은 “학생들이 FAFSA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결국 학비 부담으로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 독립문서 여는 삼일절 공관장들 “불참”

〈중가주 리드리〉

미주 지역 항일운동의 근원지에서 LA 지역 한인 단체들이 최초로 개최하는 삼일절 행사가 한국 정부 관계자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관할 지역 문제와 초청 여부를 놓고 재외공관끼리 서로 미루고 있어서다.

LA한인회는 삼일절 당일 중가주 리드리에 세워진 독립문(사진)에서 흥사단,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등 6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념식을 연다. 리드리시는 1920년 해의 최초로 3.1 운동 가두 행진이 열리는 등 미주 지역 초기 항일운동의 중심지다. LA한인회가 LA밖에서 국경일 행사를 여는 건 창립 62년 만에 처음이다. 뜻깊은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지만 이 장소 때문에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 모두 참석하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행사가 열리게 될 리드리 지역 독립문은 구갈땀으로 보면 LA총영사관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져 있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는 남쪽으로 211마일 가량으로 거의 중간지점에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중가주 리드리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타공관 관할 지역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업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

한인회, 항일운동지서 첫 개최  
남북으로 200여마일 중간지점  
관할구역 놓고 공관끼리 미뤄



장이다.

LA총영사관 김혜진 영사는 “외교부 규정상 관할 지역 밖 행사는 참석하기 어렵다”며 “만약 타공관 관할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려면 본부(외교부)의 승인과 해당 지역 공관의 양해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LA한인회관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될 행사에는 가급적 참석할 계획을 밝혔다. 김 영사는 “(김영완 총영사가) 참석하게 된다면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할지가 아니어서 직접 참석은 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기념사

는 관할 재외공관이 아닌 LA총영사관에서 대독할 수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측 역시 참석하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한 관계자는 “삼일절 행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이곳 행사 참석이 공관 입장에선 우선”이라며 “LA한인회에서 초청장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 지역은 사건, 사고나 민원 발생 시 어떤 공관이 선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LA한인회가 여는 뜻깊은 행사에서 관할 구역을 핑계 삼아 LA총영사관이 불참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LA총영사관의 책임임을 지적했다.

양 재외공관의 서로 다른 관할 구역 책임론에 한인단체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리드리시는 미주 한인 역사에서 위낙 의미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LA총영사관측에서 당연히 참석하리라 봤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며 “현장 참석은 못 하지만 한인회관에서 생중계 기념식 참석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장열·김경준 기자

## 설 송금 1698만불 ... 10.8% 감소

강달러에도 고물가 부담 탓  
건수는 7.4% 증가한 6771건

지속된 고물가와 경기 하강에도 설 송금 건수는 늘었다. 그러나 금액은 전년도보다 10% 정도 줄었다.

본지가 남가주에 지점을 둔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 US메트로뱅크, 우리아메리카, 신한아메리카 총 8곳의 송금건수와 액수를 집계한 결과 올 설 연휴 동안 한인들이 한국에 돈을 보낸 건수는 6771건이었으며 송금액은 1698만 달러였다.

송금 건수는 지난해보다 7.4%(110건) 증가했다. 반면 총 송금액은 전년 대비 160만 달러(10.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건당 송금액은 2507달러로 지난해 2791달러 대비 10.2%(284달러) 줄었다. 송금액은 2023년에 이어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 한인은행 8곳 중 송금액이 전년만 못한 은행은 6곳이었다. 특히 US메트로뱅크와 우리아메리카는 두 자릿수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은행별로 송금액을 살펴보면, 뱅크오브호프의 설 송금액은 2023년 설과 거의 동일한 720만 달러였다. 한미은행

2024 한인은행 설 송금 현황

은행명	송금 건수 (건)			금액(\$)		
	2024	2023	증감(%)	2024	2023	증감(%)
뱅크오브호프	2355	2487	-5.3	7,200,056	7,257,651	-0.8
한미은행	1374	1427	-3.7	3,582,362	4,045,738	-11.5
PCB뱅크	214	213	0.5	528,102	859,809	-38.6
오픈뱅크	127	118	7.6	794,027	844,574	-6
CBB뱅크	91	87	4.6	332,140	780,969	-57.5
US메트로뱅크	64	49	30.6	209,187	147,790	41.5
우리아메리카	2011	1808	11.2	2,824,825	2,308,841	22.3
신한아메리카	535	472	13.3	1,510,355	2,350,249	-35.7
총계	6771	6661	7.4	16,981,054	18,595,621	-10.8

자료: 각 은행

은 358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1.5% 감소했다.

PCB뱅크도 전년과 비교해 38.6% 준 52만 달러로 집계됐다. 오픈뱅크의 경우, 전년 대비 송금액(79만 달러)의 감소 폭은 6%로 비교적 완만했다.

CBB뱅크의 송금액은 전년보다 57.5% 급감한 33만 달러였다. 신한아메리카 역시 작년 설 때보다 35.7% 부족한 151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에 US메트로뱅크는 전년 대비 41.5% 증가한 20만 달러였으며 282만 달러인 우리아메리카도 지난해보다

22.3% 증가했다.

송금 건수로는 은행 8곳 중 2곳을 제외하고 늘었다. 송금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뱅크오브호프(2355건), 우리아메리카(2011건), 한미은행(1374건)이었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달러 강세에도 송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고물가와 경기 하강으로 얇아진 주머니 사정 때문”이라며 “지난해보다 건수가 늘어난 걸 보면 한국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려는 한인들은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재선 기자

## 인공지능 스피커가 한인 노인 살렸다

위장약 과다 복용해 쓰러져  
‘구조 요청’ 명령해 911 출동

론 김 의원이 추진한 AI파일럿 프로그램이 한인 노인을 구조하는 성과를 냈다.

12일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이 2023~2024회계연도 주정부로부터 50만 달러와 SK텔레콤의 솔루션 지원을 받아 100명의 한인 시니어에게 나눈 인공지능(AI) 스마트 스피커 ‘누구(NUGU)’의 도움으로 플러스한인 시니어 유두수(70·사진 가운데)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8일 위염치료제 잔탁(Zantac) 과다복용으로 쓰러졌다.

플러스 리즈마USA 관제센터는 평소 교류가 활발하던 유씨가 42시간 넘게 응답이 없자 홈케어매니저를 통해 전화를 걸었다. 유씨는 전화를 받아 “괜찮다”고 답했지만, 이내 쓰러졌다.

이때 “아리(인공지능의 이름)야 나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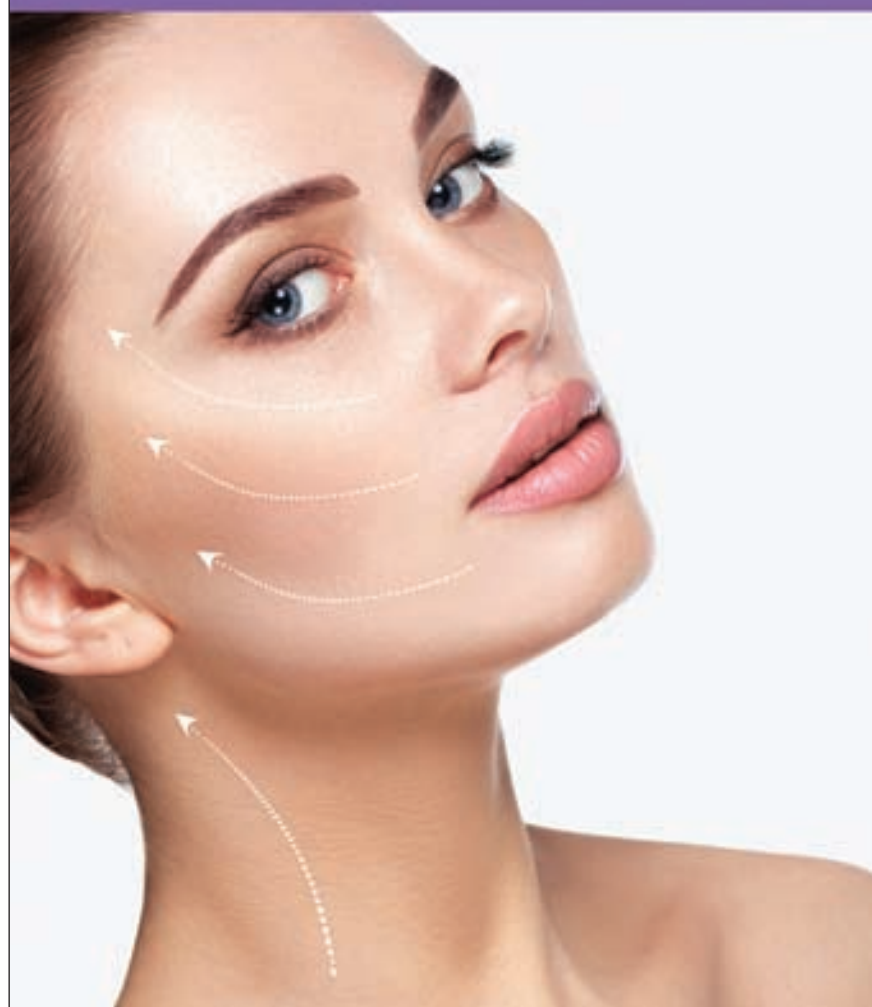


각 홈케어매니저를 통해 911에 신고했다. 덕분에 유씨는 빠른 시간 내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되찾았다.

‘누구’는 SK텔레콤이 제작하고, 비영리단체 리즈마재단(LISMA Foundation, 이사장 김민선)이 미국에 유통한다. 응답 기능은 아마존 알렉사와 호환된다.

김 의원이 퀸즈 지역 일대에 배포한 기계는 주정부 AI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주정부 자금은 이외에도 홈케어매니저 고용에 쓰였다. 기계를 받을 이들은 메디케어 수혜자, 시니어 데이케어센터 방문자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강민혜 기자

## 스킨케어와 보톡스를 한번에!



- ✓ Board Certified NP가 직접 시술
- ✓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 ✓ 미백과 보습! 안쪽부터 차오르는 촉촉함
- ✓ Licensed Esthetician, Cosmetologist, and Massage Therapist.
- ✓ 가름해 보이고 싶은 분, 주름에 신경쓰이는 분



Neomin Botox  
안전하고 빠른 제오민

\*제오민 보톡스는 FDA의 승인을 받은 특임산 프라임덤 보톡스로서, 불필요한 복용 단계 없이 때문에 내성 우려가 거의 없어, 반복 시술에 효과적입니다.

MI-IN (301) 279-6960  
BEAUTY 2000A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 “앤디 김, 반기득권 정서에 선전”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사진)이 당내 경선에서 선전하는 가운데, 이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에 기인한다고 언론이 평가했다.



이런 제도를 문제라고 여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2021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별 진척이 없으며 김 의원은 지명도가 낮은 다른 상원의원 후보들과 함께 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김 의원의 경쟁자인 태미 머피는 남편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후광을 활용해 당 지도부를 적극 공략해 왔다. 이는 무명에 가까웠던 필 머피가 2017년 주지사에 당선됐을 때 사용한 전략이기도 하다.

당시 필 머피는 경선 2년 전부터 지역

당에 25만달러를 사용하는 등 개인 재산 1천600만달러를 경선에 투자해 주요 카운티 당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태미 머피가 민주당의 각 카운티 의장을 포섭하는 등 선거운동을 교과서대로 진행했지만, 기대대로 경선에서 독주하는 대신 일반 당원들의 적개심에 가까운 저항에 부닥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태미 머피를 망가진 기득권으로, 김 의원을 개혁 의지를 가진 후보로 보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폴리티코는 김 의원이 지난 10일 머피 주지사 부부가 25년을 거주한 몬머스 카운티의 민주당 당원대회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태미 머피에게 승리한 게 이런 반기득권 정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뉴저지 민주당은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2017년 부패 혐의로 재판받을 때 메넨데스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다른 정치인이 도전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지명도가 없는 리사 매코믹이 2018년 경선에서 38%를 득표했다.

# 나홀로 호황 미국, 숨은 비결 ‘일잘러’

(높은 노동 생산성)

“미, 노동시장 유연해 인력 잘 배치  
한국도 경직적인 시장 구조 깨야”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강력한 노동 생산성을 무기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코로나19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저성장 우려를 키우는 것과 대조적이다.

13일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노동생산성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3.2%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미국 노동생산성 증가율(4.9%)보다는 둔화했지만, 예상치(2.5%)를 뛰어넘는 수치였다.

이러한 미국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최근 강력한 미국 경제성장률의 배경이 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근로자 1명당 생산력이 증가하면, 추가 고용비용 지출 등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서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3.3%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2%)를 크게 상회했다. 같은 기간 유로존의 GDP 증가율이 0%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인 제러미 시겔 와튼 스퀴 교수는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생산성 상승으로 성장 둔화를 피하면서 물가상승세를 낮출 수 있다”며 “이것은 정말로 제품 파워(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노동생산성 향상의 배경에는 혁신 테크 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고속 성장 이면자가 있다.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20대 빅테크(매출액 기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노동 집약형인 다른 제조업과 달리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생산성을 만든다.

고속 성장 노동자 위주의 이민 정책도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 한국은 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1990년~2016년 중 미국 내 이민자 인구 비중은 10%였지만, 특히 시장가치 중 이민자가 출원한 특허의 비중은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출현으로 더 가속화 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노동 생산성 향상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김남준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 EU도 승인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13일(현지시간)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이제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만 남았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전장에서 비바리본 공항 계류장

박영우 기자, 연합뉴스

## ▶ 1면 ‘이승만’에서 이어집니다

‘이승만 재평가’는 보수 진영의 주요 화두였다. 취임식 때부터 자유주의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이 저평가됐다”며 역사 바로세우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야권은 ‘건국전쟁’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영화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가 전제하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독재와 부패, 부정선거로 쫓겨난 이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현직 대통령이 동참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건국전쟁’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유명인의 영화 관람 인증샷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수 나열은 자신의 SNS에 ‘건국전쟁’ 포스터 사진과 성경 사진을 전날 게재했다. 그러자 야권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열 2찍(보수 지지자) 인증이네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비난 댓글이 달렸다. 나열의 SNS에도 “그렇게 안 봤는데 정이 똑 떨어진다” 등 악플이 달렸고, 결국 나열은 댓글 창을 폐쇄했다.

하지만 “나도 영화 관람하고 인증샷을 남기겠다”는 등 나열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응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영근·이아미·심세롬 기자

## 쿠쿠, 2024년 첫 특별 프로모션 실시

대한민국 대표 생활 가전 브랜드 쿠쿠가 2024년 첫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쿠쿠의 엄선된 제품들을 최대 50%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을 맞이한다.

쿠쿠의 베스트셀러 밥솥을 포함해 공기청정기와 에어그릴 등 다양한 제품



을 특별 가격에 제공한다.

특히,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정용 소형 쿠쿠 공기청정기(CAC-I0510FW)의 경우, 47% 할인과 더불어 여분의 필터까지 제공된다.

프로모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쿠쿠 아메리카(cuckooamerica.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내장금(미라조 풀) 웨일리노래방 뉴타운홈

미라조 몰 내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 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ies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7) 7400524



# 트럼프 반대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하원처리 불투명

상원이 13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을 처리했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적지 않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찬성하면서 일단 상원 문턱을 넘었다. 다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 친(親)트럼프 강경파가 상당수 포진해 있어 처리 가능성 유무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다.

상원은 밤샘 토론 후 이날 오전 5시14분께 표결을 실시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을 가결했다.

953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601억 달러 ▲이스라엘 안보 지원 141억 달러 ▲가자지 구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91억5천만 달러 ▲대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원 48억3천만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가운데 원내 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을 비롯해 22명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부터 밤새워 진행된 토론에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 표결을 주장했으나 상원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군 중 한 명인 J.D.벤스 상원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추가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막으려는 외교 정책 기득권 세력(blob)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트럼프 정부를 약화할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상원의 안보 지원 예산안 처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백악관에서 나란히 걷는 바이든-젤렌스키

제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미국 국경 지원 등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패키지로 묶은 1천6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하며 “만약 우리가 이웃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분할하려는 독재자에 맞서지 않는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후과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하원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요청에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국경 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안에 대한 반대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 밤 성명에서 “하원 공화당은 이른바 국가 안보 추가 예산안에 미국 국경에 대한 안보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라면서 “상원에서 국경정책에 대한 변

화를 하나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하원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계속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안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공화당이 합세해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나설 경우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원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심사배제 청원이 통과될 경우 상임위 심사 없이 본회의의 표결이 가능하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하원에서 안보 지원 예산안 통과가 안될 경우의 ‘플랜B’를 묻는 말에 대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이 문제를 다루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는 요율 돈 항아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 “열없으면 24시간”...코로나19 자가격리 완화 추진

미국 정부가 현행 5일을 권고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 5일인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앓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변화된 현

실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오리건주의 경우 지난해 5월 이미 같은 지침을 도입했으며, 캘리포니아는 지난달부터 5일 자가 격리 대신 24시간 동안 열이 없을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 당국자들은 현장에서 이미 코로나19를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

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CDC는 이르면 4월께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아직 백악관의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격리 기준 완화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논의됐지만, 지난해 가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기미를 보이며 일단 중단된 상태다.

미국에서는 현재 매주 코로나19로 2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있다. CDC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주 누적 입원자 수는 2만7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3일 기준 사망자는 2천318명이었다.



눈 내린 뉴욕시 브루클린 거리

## 동북부 대설에 항공 1천여편 결항

13일 동북부 해안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북부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의 결항이 속출했다.

국립기상청(NWS) 발표에 따르면 이날 강한 겨울폭풍이 동북부 해안 일대를 지나가면서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뉴욕주와 뉴잉글랜드 지역 해안에 많은 눈이 뿌렸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시간당 2.5~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날 오전 11시 현재 일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약 1천500편이 결항됐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등 주요 항공사들은 뉴욕 JFK 공항 등 폭풍 영향권 일대를 오가는 항공편 표를 예약한 고객에게 여행 일정을 16일 이후로 바꿔 재예약하라고 안내했다.

새벽부터 쌓이기 시작한 큰 눈에 보스턴 등 일부 지역은 이날 휴교령을 내렸고, 뉴욕시는 공립 초중고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큰 눈이 내리지 않았던 뉴욕시의 경우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약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 뉴욕 지하철역서 총격...1명 사망·5명 부상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12일 청소년 무리 간 다툼이 벌어진 끝에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월요일인 이날 오후 4시 38분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

서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브롱크스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총격이 발생해 3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5명이다. 이들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소방국은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14세, 15세 청소년이다. 나머지 부상자 나이는 20~7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열차가 역에 정차한 순간 총격이 발생했다면서 “문이 열리자 무리에 속한 이들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총을 꺼내서 쏘다”고 부연했다.

## 작년 미국 사모펀드 수익률 11.2%

지난해 미국 사모펀드 투자수익률이 15년 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투자은행 레이몬드 제임스가 12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3년 사모펀드의 투자자 배당률은 펀드 순자산가치의 11.2%로 금융위기 당시이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 25년간의 투자자 배당률 중간값 25%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고금리와 시장 불안정,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모펀드가 기업인수 후 매각이나 상장(IPO)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

다. 투자수익이 낮아지면서 사모펀드가 언급이나 국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사모펀드 글로벌 책임자인 수나이나 신하 할데아는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 펀드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기존 펀드에 재투자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예전의 투자금 계산 방식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기간도 5~6년이 걸려, 업계 표준인 4년보다 길어졌다. 새 펀드 조성도 어려워졌다.

신규 펀드 조성이 필요한 기간은 평균 21개월로, 불과 몇 년 전의 18개월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작년에 모금된 신규 펀드 수는 29% 감소했다.

할데아 책임자는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안 좋다”며 올해 주요 인수합병이나 상장 등도 없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은 2025년이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수익률은 안 높았지만 작년 펀드 모금액은 많았다.



#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너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너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맞춤 융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 탁신 전 총리 한나절만에 가석방 '특혜 논란'

'VIP 병실 수감생활'로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탁신 전나왓(74·사진) 전 태국 총리가 결국 교도소에서 하룻밤도 지내지 않고 풀려나게 됐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는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정 당국은 노인인 환자 등 이달 가석방 대상자 930명을 확정했으며, 탁신 전 총리가 여기에 포함됐다.

타위 석성 법무부 장관은 "탁신 전 총리는 건강 상태가 심각하거나 70세 이상인 경우에 속한다"며 "수감 6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교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형량의 3분의 1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최소 6개월 복역해야 한다.

지난해 8월 22일 수감된 탁신 전 총리의 석방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타위 장관은 그가 오는 17일 혹은 18일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타 타위신 총리도 이날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 승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탁신은 총리로서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며 "풀려난 후에는 평범한 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총리에 오른 탁신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2008년 출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했다. 해외로 떠난 후에도 그는 태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자신의 세력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된 작년 8월

22일 15년 만에 귀국했다. 현재 프아타이당 대표는 탁신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이다.

귀국 직후 법원에서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그는 당일 밤 건강 이상을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가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VIP 병실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그가 경찰병원에도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반대파들은 탁신 전 총리의 귀국부터 병원 수감생활, 가석방 등에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사이 왕실 사면으로 그의 형량은 1년으로 대폭 줄었고, 결국 교도소에서는 하룻밤도 보내지 않고 약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최근 탁신 전 총리가 2015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그가 가석방된 후 다시 체포돼 구금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찰스 3세, 암 치료 1주 만에 런던 복귀

영국 찰스 3세(75·사진) 국왕이 암 치료를 위해 1주일 만에 런던으로 돌아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3일(현지시간) 오전 찰스 3세 국왕 부부가 버킹엄궁에서 인근 거처 클래런스 하우스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잉글랜드 동부 노퍽주 샌드링엄 영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복귀한 국왕은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다.

국왕은 1~2일간 머물며 암 치료를 받고 내부 회의를 몇차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텔레그래프 등이 전했다. 보좌진들은 국왕이 14일 총리 주간 접견을 대면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치료 후 반응을 본 뒤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는 전화 통화로 진행됐다.

부인 케밀라 왕비(76)는 13~15일 런던에서 일정이 여러 건 있다. 케밀라 왕비는 남편 암 투병 중에도 대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8일 저녁 외부 행사에 참석해서 국왕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그가 "대중이 보낸 모든 편지와 메시지에 매우 감동했다"고 전했다.

영국 왕실은 지난 5일 국왕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암의 종류나 단계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만 전립선암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왕은 치료 다음 날인 6일 버킹엄궁에서 헬기로 샌드링엄 영지로 이동했다.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11일엔 샌드링엄 영지에서 교회 예배에 다녀오는 모습을 공개했다. 암 진단 발표 후 첫 공개 외출이었다. 국왕은 케밀라 왕비와 함께 우산을 들고 걸어가면서 왕실 팬들을 향해 잠시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 "러, 치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첫 사용"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습에 극초음속 '치르콘'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13일(현지시간) 제기됐다. 키이우 포렌식과학연구소의 올렉산드르 루빈 소장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난 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이 3M22 치르콘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루빈 소장은 당시 수집된 포격 잔해물을 분석한 영상을 올리며 "3M22 치르콘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부품과 파편의 모습, 해당 무기 유형의 특징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부품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로켓에 호환될 수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제트 엔진과 조향장



치 잔해의 경우 치르콘 미사일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특징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치르콘 미사일의 사거리가 1천km에 이르며, 음속의 9배인 마하 9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치르콘 미사일을 실전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상대적으론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방공망 전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극우세력 자금줄 끊는다"...독일, 제재 패키지 추진

독일 정부가 우익 극단주의 세력을 사실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자금원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치의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모두 13가지 항목의 우익 극단주의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헌법수호청의 금융거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우익 극단주의자의 출입국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극우세력의 인터넷 혐오 표현을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위헌 정당이나 조직에 가입한 공무원도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총기면허를 취소하는 등 극우세력을 무장해제하고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혐오와 반유대주의를 몰아내는 방안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극단주의 세력의 모임이나 행사를 사전에 금지하기 위해 헌법수호청을 중심으로 규제당국이 정보를 더 원활히

공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날 발표된 제재 방안의 상당수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법률 개정 절차를 밟고 있어 내용이 알려진 것들이다.

독일 정부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인 2020년 11월 우익 극단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89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극우세력 무장해제를 위한 총포단속법 개정안은 2021년 '신호등' 연립정부 출범 이후 의회에 제출됐으나 계류 중이다.

# 애난데일 오픈



## 당신을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 Patient First®



###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긴급 및 일반 진료/검사/치료 제공 주말 및 공휴일 포함 365일 오픈(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 예약없이 방문가능
- 각종 질병 및 부상 긴급 진료및 치료
- 주치의가 없는 환자에게 기본진료 제공
- 각종 주요 보험 환영- 보험 청구 접수대행
- 각종 혈액, 소변, 엑스레이검사등을 병원내에서 신속하게 실시, 처방약 병원내에서 구매 가능
- 응급실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
- 원격 진료

### Annandale

7042A Little River Turnpike  
(순환도로에서 동쪽으로 1.5 마일)  
(703) 343-7125



# '경계작전도 실전' 출항 때마다 천안함 추모비 앞 결의 다진다

**'잠들 수 없는 서울함' 단독르포**  
명절에도 가족과 연락 끊긴 채 근무 밤엔 적에 노출 안되게 함교 불꺼 새벽 북 선박 포착 땀 긴장감 돌기도

**"유도탄! 유도탄!"**

지난 7일 오후 1시58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해상경계 근무 중인 해군 2함대사령부의 2800t급 신형 호위함 서울함(FFG-II)의 전투 지휘실에서 다급한 함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박제준(42·해사 59기·중령) 함장이 100여 명의 승조원이 일사불란하게 '전투 배치' 모드에 돌입했다. 비상등이 켜지자 지휘실이 숨 막힐 듯한 푸른 빛으로 가득 찼다. 청색등은 서울함의 탐지 장비가 NLL 이북 해상에 있던 북한 함정의 유도탄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는 뜻. 빠르면 40초 뒤, 길어도 1분 안에 우리 함정이 격침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빠르게 구멍의 입을 보면서 대응태세를 갖춘 승조원들의 표정은 긴장돼 보였지만, 행동은 침착했다. 박 함장은 "5인치 함포, 해공, 근접 방어 무기 체계(CIWS) 등을 가동하라"고 명령했다. 국산 함대공 방어 미사일 '해공' 등으로 우선 유도탄 공격을 저지하라는 의미였다. 적의 유도탄을 교란하기 위한 기만탄, 전자 공격도 동시에 이뤄졌다.

곧이어 박 함장이 "적정 해상 이용 타격"이라고 말했다. 대함 유도 미사일 '해상'으로 북한 함정을 격침하란 지시였다. "유도탄 발사 10초 전! 10, 9, 8, 7, 6... 발사!" 이어 몇 초간 긴장 어린 정적이 흘렀다. 표적이 명중했다면 생(生), 빛나갔다면 사(死). 누군가에게는 찰나지만 서울함 승조원들에겐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었다. 이내 지휘실 모니터에 떠 있던 표식들이 사라졌다. 북한 유도탄들이 공중에서 격추됐고, 함정도 파괴됐다는 평가가 됐다.

이날 공격 상황은 가상 훈련의 일부



**호위함 서울함(FFG-II)**  
• 2019년 11월 11일 진수식  
• 대우급 호위함(2800t급)  
• 순장량 약 1300t  
• 길이·폭·높이 122m·14m·35m  
• 최대 순항 속력 30kts(노트), 5kts  
• 무기 체계 등 5인치 함포, 대함미사일(해상, 대공미사일(해공), 대지미사일),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한국형 수직발사체(KVLS), 함포 레이더, 아방위체계, 대함유도탄 기만체계, 해상 적정함기(AW-159) 등

지난 7일 서울함 함교에서 전시 훈련인 '전투 배치'를 지휘하는 박제준 함장(왼쪽). 실전에서 유리창을 뚫고 탄환이 날아올 수 있기에 훈련에서도 철모와 방탄 구멍의를 착용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파도를 헤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작전 구역으로 향하는 서울함. [사진 해군]

였다. 탐지부터 상황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 실전이었다면 적함으로부터 실제 미사일이 날아들고, 해공과 해상이 불을 뿜었을 테다.

훈련은 가상이지만, 서해에 출항하는 승조원들의 마음가짐은 항상 실전이다. 제1연평해전(1999년)과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2010년) 등으로 55명의 장병이 목숨을 바친 그 '최전방 바다'이기 때문이다. 평택이 모항인 해군 2함대 산하 함정 근무자들이 경계 작전에 나설 때마다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앞에서 결의를 다지고, 출동 대신 '출전(戰)'으로 부르는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방한계선은 허용할 수 없다"(1월 15일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고 선언하고 연일 전쟁 위협을 하는 가운데 기자는 해군의 협조로 지난 7~8일 서울함에 동승했다. 언제, 어디서든 북한군 공격이 이뤄질 수 있는 NLL 부근 백령도 해역에서 '잠들 수 없는 전투함'의 24시간을 따라가 봤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이 들떠 있는 시점이었지만, 4월 총선 전 북한이 도발한다면 또다시 표적이 될 수 있는 서해 NLL의 긴장감은 남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방한

계선은 허용할 수 없다"(1월 15일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고 선언하고 연일 전쟁 위협을 하는 가운데 기자는 해군의 협조로 지난 7~8일 서울함에 동승했다. 언제, 어디서든 북한군 공격이 이뤄질 수 있는 NLL 부근 백령도 해역에서 '잠들 수 없는 전투함'의 24시간을 따라가 봤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이 들떠 있는 시점이었지만, 4월 총선 전 북한이 도발한다면 또다시 표적이 될 수 있는 서해 NLL의 긴장감은 남달랐다.

지난 7일 오전 9시58분. "출하야아~" 우렁찬 함내 방송과 함께 군함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평택항은 암초가 많고 일반 상선들도 다니는 데다 협수로라는 '삼박자 난이도'

가 있는 수역이다. 1시간 넘게 서해으로 협수로를 벗어나 작전구역까지 수 시간 동안 경계 임무를 하며 이동을 시작했다. 이날 점심으로는 뼈해장국과 새우튀김, 고추된장무침 등이 나왔다. 정현범(34·소령) 부장은 "설 연휴에는 딱만두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절에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망망대해에서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승조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특식이다.

점심시간도 잠시, "잠시 후 탄약 장전" 함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탄약 장전은 창고에 보관된 함수의 5인치 함포를 발사 가능 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부다다' 고막을 때리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가 비행갑판에 내려앉았다.

오명진(28·대위 진) 갑판사관(담당장교)의 지휘에 따라 30~40명의 승조원이 바빠 움직였다. 한 시간에 걸쳐 갑판의 안전망을 내리고, 날개 고정 장치 등을 준비한 뒤 승조원들이 헬기의 앞바퀴에 와이어를 걸어 격납고로 살살 이끌었다.

전면부가 통유리창으로 돼 있는 함교는 적에게 들리지 않기 위해 밤에 불을 완전히 끄고 근무한다. 함교에서 바라보니 검은 바다와 하늘이 구분되지도 않았다. 박 함장은 "어두울수록 북한군의 침투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선달그름에 가까워 무(無)원광"이라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서울함은 전원이 3교대로 8시간씩 나눠 당직을 선다.

8일 새벽 5시쯤 북한 어업지도선 네척이 NLL 북방에서 포착되자 긴장이 감돌았다. 다행히 북한 선박이 더는 남하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는 헬기를 타고 평택까지 모처로 돌아왔다. 조종석을 향해 인사를 몸짓으로 건네자, 2함대 622비행대대 소속 조종사의 거수경례가 돌아왔다. 기자도 어느새 '필승!' 구호가 맴돌았다.

평택=이유정 기자

## "25년 전 연평해전 경험 여전히 군복 입은게 내 자랑"



서울함의 사격동제를 담당하는 이찬영(50·사진) 주임원사는 스물다섯 살이던 1999년 6월 15일 벌어진 제1연평해전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영해를 침범하자 한국 해군 고속정이 부딪쳐 '밀어내기' 공격으로 맞서다 교전이 벌어졌다.

우리 해군은 응사해 북한 어뢰정과 경비정은 침몰하거나 선체가 파손된 채 퇴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잠수리 322호에 이 원사도 타고 있었다.

지난 7일 밤 서울함에서 만난 그는 "아직도 가끔 트라우마처럼 그때 일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 측은 부상자만 있었고, 북한에선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이 원사도 실전은 처음이라 충격이 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배로 돌아갔다. 해군에 30년간 복무한 이 원사의 해상 근무 경력은 26년4개월에 달하고, 출동 일수는 약 4000일에 이른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때는 참수리정에 몸을 싣고 동료들을 구조했다.

그 역시 군 경력 초반엔 육상 근무도 지원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함정 근무를 연이어 하게 됐다고 한다. "아빠하고는 추억이 없다"고 가끔 불만을 토로하던 어린 딸은 그사이 대학생이 됐다.

그는 최근 가장 힘든 일로는 "점점 심해지는 해군의 인력난"을 꼽았다. 그는 "배를 타야 해군인데, 다들 육상 근무를 더 선호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군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명예고 자랑"이라고 말했다.

평택=이유정 기자

## "100명 장병 목숨 맡았다" 의자 앉아 열흘 쪽잠자는 함장

서울함 지휘관인 박제준 함장의 함장실. 24시간 돌아가는 함 내 폐쇄회로(CC)TV 모니터, 각종 데이터 실시간 기록 장비와 7대의 전화기 못지않게 눈길을 사로잡는 건 협탁에 빼곡하게 놓인 각종 영양제와 상비약이었다.

"아프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100명 넘는 승조원의 목숨을 맡고 있으니까요." 분 단위로 육성 보고가 들어오는 함 내 통신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내놓은 설명이었다.

실제 그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만 승조원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승조원들의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며 무난하게 출동을 마무리하는 것도 그의 중요 임무다. 경계 근무 관련 활동 외에 "청소 도구가 부러졌다"는 민원까지 모두 함장에게 올라온다.

배의 추진과 항해부터 탐색·전자 장비, 대공·대함·대잠 무기체계 등 섬세한 첨단 장비는 물론 사람까지 총지휘해야 하는 함장의 책임과 권한은 막중

할 수밖에 없다. 함장실에 침대가 있지만 열흘 남짓 출동 기간 내내 그가 의자에 앉은 채로 한두 시간씩 쪽잠을 잘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천안함 피격 같은 북한 기습공격이 언제 다시 이뤄질지 모른다는 공포도 이겨내야 한다.

군의 인력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해군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서울함은 130명이 정원이지만, 100명 남짓(약 70%)밖에 승조원을 채우지 못했다. 처우도 문제다. 1년에 4~5개월씩 바

다에 나가 있는 함정 근무를 포함해 20년 가까운 경험을 쌓아야 2급함(호위함)을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 한 명이 배출된다. 하지만 4시간 이상 항해 시 받는 '출동 가산금'은 하루 9000원. 초급 간부부터 함장까지 동일 금액이다.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박 함장은 "해군이라면 함장이라는 직책을 영예롭게 여기며, 모두가 이 자리를 꿈꾼다"는 '모범답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5~10년 뒤를 따를 젊은 장교들도 같은 답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열악한 처우에 군인정신만으로

수십 년간 바다 위 생활을 감내하라는 건 쉽지 않은 요구로 보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육군 최전방(GP·GOP), 해군의 함정 근무 등 경계 부대 근무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을 확대하고 속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대위 이하 장교·부사관 등 초급 간부들에게만 해당한다. 정작 이들의 미래인 현장 지휘관들은 외면당하고 있다. '군의 허리'인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보상 체계와 임무 여건 개선이 절실히 보였다.

평택=이유정 기자



**대표 정희수**  
703-477-3114

**부동산 최고의 권위!**

# 현대부동산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Principal Broker 세은**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매어팩스스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703-259-5617, 410-241-2520**



CUCKOO

# 2024년에도 쿠쿠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간 | 01.27.2024 - 02.26.2024 조건 | 기간 내 주문 & 2월 내 설치

## 첫 프로모션

Offline only

### 쿠쿠 첫 렌탈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

1개만 렌탈 해도



신규고객 대상 샤워헤드 (CWC-BB001C) 증정 / 타사 고객 대상 마이콤 밥솥 (CR-0641F) 증정

\*양부 포함할 고객 최대 2024.1.27 기준 1달 무료기간 범위 당사 렌탈 제품 외 보유고객 1명까지 지원  
\*타사 고객 임대 형태 1달 무료 기간 기준 1달 무료 렌탈 기간이 아닌 구매 고객으로 1년이상 타사 제품을 사용중인 고객이 당사 제품으로 렌탈시 적용

복수 구매 시



신규고객 대상 마이콤 밥솥 (CR-0641F) 증정 / 타사 고객 대상 HP 밥솥 (CRP-STD6 WHITE) 증정

\*타사 제품 렌탈 기준 1회 렌탈 1달 무료(2024.1.27.~2024.2.26.까지) 적용, 동일한 HP 밥솥 2개 이상 렌탈시 1회 렌탈 1달 무료 적용  
\*복수 렌탈 1달 무료 기간 기준 1회 렌탈 1달 무료(2024.1.27.~2024.2.26.까지) 적용, 동일한 HP 밥솥 2개 이상 렌탈시 1회 렌탈 1달 무료 적용

## 더 큰 혜택

Offline only

### 제품 1개 이상 렌탈 시,

1개 렌탈 시  
다운페이 \$100 할인



2개 렌탈 시  
더 큰  
혜택



밥솥 (CR-0641F)

3개 렌탈 시  
더더 큰  
혜택



샤워헤드 (CWC-BB001C) & 밥솥 (CR-0641F)

## 혜택3

Online & Offline

일시불 할인  
최대 20%



\*일부 제품: 청소기 (M-T00L / 미니진공), 향정기 (C-020, 미니, 더블 클린저)  
\*오리진입 제품: 양면 제품 외 전 제품 (LED MASK 포함)  
\*보유고객 적용 제외 제품: 미니 CRT-W0300CH / 양면짜기 전모양 고품질 직물: 울탄 및 저구 4인용 모두 제외

## 혜택4

Online & Offline

펫드라이어  
\$300 할인



### Virginia

K마켓 Annandale 240-595-2257

하이트존스 Centreville 571-404-4132

리빙스토리 Centreville 703-975-1313

건강마을 Centreville 703-712-7116

### Maryland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 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즉각 강구하라”

기업 저출산 해소 노력에 “고무적 부산 찾아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격적인 규모의 출산 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부 기업의 노력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최근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3000만원 안팎

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의 경우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부산을 납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특별법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 동래시장 건어물 가게를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2년 만에 동래시장에 다시 왔는데, 이 부산과 동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자나 깨나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은 반경 100km 이내 첨단산업단지과 기업들이 즐비해 있다”며 “싱가포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천하장사를 지낸 이

만기 인재대 교수의 사회로 시민 패널리스트 토론회가 진행됐다. 위경만이 “제2 도시임에도 종종 소아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워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병원 건립을 건의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복지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부산으로 오도록 지원해 달라”는 부산대 학생의 말에 “산업은행 이전뿐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과 부산을 자석이 빚대어 “자석이 양극으로 있으면 자석 주변에도 철가루가 있지만, 양쪽 균형 때문에 가운데에서도 그 위치를 지킨다”며 “서울·부산을 양극 체제로 천지개벽시켜야 하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250여 년의 전통의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일훈·김지혜 기자

## 비대위 전환한 의협·전공의, 집단행동 일단 자제

정부 강경대응 기조에 신중 모드 의대 증원 찬성 여론 큰 것도 부담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우리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싸우겠다”고 첫 입장을 냈지만, 총파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까지 밤샘 토론회를 벌인 대한전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손팻말이 놓여 있다. [뉴스1]

공의협의회(대전협)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당장은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

해 “12~13일 진행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대전협 부회장·이사·국원 전원 사퇴 및 비대위 전환 건이 가결됐다”며 “회장을 뺀 국원 전원이 사퇴하고, 대전협은 금일부터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파업 등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공의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는 데에는 면허 취소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부담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립병원 인턴 A씨는 “면허 취소 이야기는 우리에게 협박 수준이라 들 선불리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전공의가 100% 가깝게 단체행동 등 강경 투쟁에 동의했지만, 의협 차원의 비대위가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점을 조절해 달라고 (대전협에) 전달했다”며 “전공의와 의협이 같이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힘을 모으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첫 회의… 통합 반발 기존당원에 “소통 미흡” 사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공동대표. 김성룡 기자

“선명야당 우뚝 서 대안세력될 것” 이낙연 “목표 의석 최소 30석”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3일 야권의 제3지대 통합에 대한 기존 당원들의 반발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가 꾸러진 뒤 처음 열린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과정에서 소통 절차의 미흡함으로 소외감을 느끼시고 우려를 하게 되신 당원과 지지자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기존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 등에서 빅텐트 구성을 놓고 ‘보수까지 상실 우려’ 등을 이유로 항의하는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오후에도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절차적 혼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마지막 협상에 배석했던 당사자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생각의 스펙트럼은 개혁신당이 장기적으로 수권세력이 되기 위해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고개를 숙인 이 대표의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

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를 향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과 이재명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라며 “개혁신당이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세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양당이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비판했다.

두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 목표 의석수론 최소 30석을 제시했다.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낙연 대표는 “30석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CBS라디오에서 “다다익선이라 30석보다는 목표가 크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 왜 비키리 부동산인가? 왜 약착같은 부동산인가?

- 17년 경력의 주택 관리 능력과 16년 연속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탑에이전트, 경험과 부동산 지식을 갖춘 브로커, 비키리입니다.
- 매년 변경되는 부동산 법, 버지니아, 매릴랜드, 디씨 혹은 각 카운티 별 준수해야 하는 부동산 수칙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 예) 펫 디파짓: 돌려줘야 하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Non refundable pet deposit 은 불법입니다.
  - 예) 브로커가 아닌 에이전트가 임대주택관리 해줄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관리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 예) 디파짓은 2개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예) 스모크디텍터: 각방마다 각 층마다, 지하실과 주방 이산화탄소 & 스모크디텍터 설치
-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계약시 계약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믿을만한 부동산이 필요하신가요? 부동산의 관한 어떠한 질문이라도 비키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 매릴랜드 / 301-399-0140 | D.C. / 301-399-0140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G-TAX**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 “정진상에 백현동 인허가 청탁” ...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백현동 첫 판결서 앞선수재 최고형 “도주 우려” 법정구속... 추징금 63억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71)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앞선수재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사건’에서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인연 등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실형 선고와 함께 “중형 선고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추징금 63억5733만여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책조정실장에게 백현동 관련 각종 인허가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시행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 5억원 상당의 합바사업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

서 김씨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자연녹지→준주거지역) 및 주거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배제 등을 성남시에 실제로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현금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으로 봐 무죄로 판단했고, 합바사업권 수수는 유죄로 인정하되 액수는 ‘미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안 작업 외에는 (다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며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대장동·백현동과 관련한 여러 사건의 첫 선고였다. 재판부는 ▶김인섭과 이재명·정진상의 친분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결정 과정에 정바울·김인섭·정진상이 관여한 점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과정에 정진상이 관여하고 이재명이 결재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이재명 전 시장과 친분을 쌓았고, 여러 차례 선거를 지원하며 이재명·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며 “공무원들도 피고인이 이재명·정진상과 특수 관계인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성남시도시계획팀장에게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 했다”고 언짢한 데 대해 재판부는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시정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재명·정진상을 ‘2층’으로 칭했다”고도 짚었다.

김정연 기자

## 북·일 정상회담 추진 질문에 ... 기시다 “여러 활동 중”

연초부터 북·일 관계가 급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조만간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지를 저하로 위기에 처한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문제 해결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작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면서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여러 경로로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 변화는 연초부터 감지됐다. 북한이 1월 1일 발생한 일본 노토(能登)반도 지진에 대해 6일 전례 없는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다. 당시 전문에서 김 위원장은 기시다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며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하루 뒤 기자회견에서 “노토반도 지진 피해와 관련해 각국으로부터 위문 메시지를 받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폭 잡어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당시 하야시 관방장관은 북한과의 접촉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관계자들과 비밀 접촉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가을 평양에 고위관리를 파견해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양국 간 입장차 등으로 협상은 정체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오늘 남부지방 최고 20도 3월 하순의 포근한 날씨를 보인 13일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한 외국인이 민소매 차림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늘(14일)은 서울 아침기온이 영상 9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경북 포함 19도, 광주광역시 18도 등 낮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뉴스1]

## “환경부담금 규제 완화가 1호 목표”

정부 부담금 중 환경부 몫만 20개 오염 방지 목적과 맞나 모두 검토

취임 3년 차를 맞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환경 규제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면서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개선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의 환경부가 추진해온 사항”이라며 “시대가 바뀌면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어지는 규제가 생긴다. 현장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올해 환경부가 추진할 규제 개선 1호로 환경부가 운영하는 부담금(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조세와 별

도로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을 꼽았다. 한 장관은 “(환경 부담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당초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도입 이후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그림자 조세”라고 언급하며 전면 구조조정을 지시한 사항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부담금 징수액은 총 22조 4000억원으로, 이 중 환경 부담금은 2조 8000억원 규모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재료·용기 취급 업체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내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금 등이 있다. 앞서 정부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부과금의 대상과 목적이 같은데 따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정부가 운용하는 부담금 91개 중 환경

부 몫은 20개로 가장 많다”며 “합리성 제고를 위해 모든 항목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수출을 도와서 수출수주 2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산업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2년 8월 취임 이후 규제 개선, 녹색 산업 수출, 물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전통적인 규제 업무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환경과 경제는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밀접해진 지 오래”라며 “2015년 파리기후협약보다 수년 앞선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했고, 이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나오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논의를 한국이 선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 산업화가 이

뤄져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녹색산업 수출도 이런 흐름 속에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내 기업이 환경부와 협력해 세계 최대 규모로 오만 두름 지역 그린 수소개발사업권을 획득해 그린 암모니아를 한 해 120만t 생산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꼽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색산업 수출·수출 목표 20조원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목표를 22조원으로 높여잡았다.

MB정부에서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한 장관은 “한국이 선두주자였던 녹색성장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지 않고 꾸준히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녹색 정책은 백년대계로 생각해 꾸준히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엇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2023 Return

A

T X

##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 '위약금 70억' 클린스만 선임한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해

시민단체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선임과 관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라며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 등이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

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20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2년 반 정도의 임기를 남겨둔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경우 축구협회가 물어줘야 할 위약금은 약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진 사퇴가 아닌 해임일 경우 잔여 임기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에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들

수행함에 있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예정돼 있던 대한축구협회 제5차 임원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불참으로 이날 임원 회의를 취소하고, 김정배 상근 부회장 주재로 아시안컵 관련 임원진 회의를 진행했다.

홍주희 기자

## "아들 차 왜 못 들어오나"... 설날 아파트 출입 차단기 부순 입주민

설 명절 아들의 차가 아파트에 못 들어온다는 이유로 출입 차단기를 부순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차단기 부수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우리 아파트에도 일어났다"며 "명절에 아들이 놀러 왔는데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냥 부숴버렸다"고 적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지난 9일 흰색 SUV는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한다. 이 차가 진입할 때 차단기 바가 위로 들어 올려졌는데, 이때 차단기 옆에 있던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단기 바를 붙잡고 반대 방향으로 썩어버렸다. 해당 차가 진입한 입구는 '입주민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남성은 경비실 창문까지 부수고 갔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부순 입주민.

는 네티즌 B씨에 따르면, 한 남성이 정문 경비실에서 '내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 오는데 차를 주차하지 못한다'고 화

를 내며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네티즌 C씨도 댓글로 "2000세대의 아파트가 시외곽에 떨어져 있다 보니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상태. 최근 주차 관제 시스템을 바꿔서 적용 중이며 입주민의 방문 차량은 앱을 통해서 관리 중"이라며 "방문 차량은 사전 등록이 가능하고, 모든 출입구에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시출입(2시간)이 가능하지

만 2시간 초과 시에는 '블랙차량'으로 구분해 주차를 막는다고 아파트에서 지난해 9월 25일 공지했고, 계도기간을 갖고 실행했다"고 했다. 입주민의 아들 차량이 '블랙차량'으로 인식돼 차량 출입이 안 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화가 나면 부수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치료가 시급하다"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 해야 한다" "경비원분들이 유리 파편에 다치신 거 아닐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현예슬 기자

## '불법도박' 비트코인 4000개 번 딸 2심서 608억 → 15억원 대폭 감형

해외에서 아버지와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40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훈)는 13일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608억305만원 추징을 명령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15억2000여만원으로 삭감됐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비트코인 320개는 몰수 처분을 명령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원화 3932억9716만원 상당인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 B씨(수감 중)로부터 자금 세탁을 지시받아 이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5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태국에서 불법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아버지 B씨로부터 사이트를 넘겨받아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자 딸에게 사이트를 넘겼고, 딸 A씨는 아버지 B씨가 붙잡혀 해당 도박사이트를 대신 운영했다.

또 아버지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자매와 함께 비트코인을 차명 환전하던 A씨는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경찰에 탐기가 잡혔다.

광주경찰청은 국내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불법 수익금인 1800여개의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중 320개 압수에 성공했지만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틈을 타 A씨 일당은 이 가운데 147개 비트코인(현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을 빼돌렸던 혐의도 받았다.

한영혜 기자

## "부적 쓰면 로또 1등... 굿 안하면 죽는다"

### 2억 뜯은 30대 무속인

'부적을 쓰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며 2억원 상당의 부적과 굿 비용을 갈취한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점집을 운영하며 2022년 8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부적 비용으로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고, 굿 값으로 2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에 '부적을 쓰면 로또 12등에 당첨된다'는 광고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B씨 등에게 부적을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복권 당첨을 위해 '지목한 장소에 구매한 부적을 맡으면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현혹했다. A씨는 물어둔 부적을 파낸 뒤 B씨에게 "잘못 물어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또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가족이 죽게 된다'는 점괘 풀이를 알리며 피해자들에게 굿판 명목으로 2억원 상당 차용증을 뜯어내기도 했다.

낙첨에 이어 차용증을 써줬는데도 굿판이 열리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 의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과거 다수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신념을 받은 진자 무속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동창에게 750만원을 갈취한 A씨의 연인인 20대 후반 여성 C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채들리 타운홈**

**PENDING**

**\$560,000**

방3, 화3.5, 차고1, End Unit  
2009년산  
사우스라이딩

**버크 타운홈**

**PENDING**

**\$549,000**

방4, 화3.5, 2 Assigned  
뉴키친, 뉴윈도우  
굿 로케이션

**센터빌 싱글홈**

**PENDING**

**\$690,000**

방3, 화3.5, 차고2  
새지붕, 새HVAC, New Flooring  
뒷마당 넓은 집, Fully Fenced

**COMING SOON**

**헤이마켓 싱글홈**  
방4, 화4.5  
3600sf  
업그레이드 중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업그레이드  
굿 로케이션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Ex: 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간호 비용이 입금)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 사전투표지 공무원 도장 못받고, '바지사장' 위원장 그대로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수(手) 개표와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바코드화를 도입키로 했다. 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와 개표의 신뢰성을 높여 시비를 원천봉쇄하려는 조치인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또 다른 블랙홀인 사전투표 용지의 보안성 강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비롯해 고위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과 복한 해킹 사태 등으로 드러난 선관위 병폐의 구조적 문제점을 전·현직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짚어본다.

## 선관위 "날인할 공무원 없다"

총선을 56일 앞둔 현재 최대 쟁점은 사전 투표 용지 날인 문제다. 선거법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성이 입증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소가 혼잡해진다"는 이유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이래 10년째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를 교부해 왔다. "사전투표지 인쇄 날인은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원 점검 결과 해킹 세력이 선관위 관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법대로 관리관이 현장 날인한 투표용지를 배부케 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8일 "본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현장 날인) 않겠다고 고집하면 선관위가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무원들 반발이 심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총선에 필요한 공무원이 6만명인데 현장 날인시 1만명을 늘리고 예산을 110억원 증액하면 된다. 투입될 공무원은 수당을 올리고 휴가도 주기로 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반대부터 한다. 행안부·법무부 장관이 공동 담화문을 내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 문제를 알아 목소리를 낸 것이며 앞으로도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반박했다. "현장 날인시 추가 투입될 공무원은 수만 명에 달한다. 행안부에 미리 그들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 않았다. 수당 올려준다고? 정당 참관인 수당이 9만원 인상된 만큼 공무원도 8만원은 올려줘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겨우 3만원 올려줬다. 현장 날인은 불가능하다."

전직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가 무슨 책임을 지게 될지 몰라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투개표 관리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는데,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행안부가 현장 날인 근무를 요청해도 거부하면 그만이고 선관위도 강제력이 없어 동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처럼 선거업무는 공무원의 '의무'로 못 박고 거부시 처벌하도록 지자체법을 개정해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4·10 총선 종합상황실에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이 표시돼있다. [뉴스1]

법률상 '현장 날인' 10년째 안해  
'공무원 반발' 이유로 인쇄 날인  
관사 겸직 위원장, 들러리 전략  
'국회 대응' 내세워 여의도 지원

한다"며 "사전투표는 투표 이후 상황을 선거에 반영할 수 없는 데다 부정 논란과 불복의 화약고도 됐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 자체 의견"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현재 중앙위원장은 대법관, 시·도 위원장은 지방법원장, 시·군·구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한다. 비상근인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회의만 참석하고 업무는 선관위 공무원 수장이 사무총장이 장악하니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 노태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다. 선관위원장은 상임이어야 한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 한 달에 30분 근무하는 선관위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전직 부장판사의 고백이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부터 형식적이었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회의 시각을 오후 5시 반에 잡더라. 현안 보고 30분 만에 회의는 끝난다. 한 달 내 내 법원 업무만 한 내가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사정을 파악하겠나. 결재만 줄줄 해준다. 그러면 끈장술을 결들인 회식으로 이어진다. 회의 불참하고 회식만 한 선관위원들도 50만원 수당을 받더라. '이러면 되냐'고 했더니 '관행인데 뭘 따지시냐'고 하더라.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 직원이 '수사 의뢰감'이라며 결재를 청한 건이 있었다. 범죄 수준이 못돼 거절했더니 '처벌된 유사 사례가 있다'며 반발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그러자 직원은 결재된 것으로 치부해 뒷전에 올려버리더라. 선거 당일도 가관이다. 내가 '중요한 날이니 선관위로 출근하겠다'고 하니가 선관위 공무원들은 '오셨잖아 하실 일 없다. 투표 마감 즈음인 오후 5시 반쯤 오시면 된다'고 막더라. 2년 전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등 대혼란이 터진 사전투표일에 노정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아 욕을 먹었는데 실은 선관위 직원들이 '나 오실 일 없다'고 막아 안 나왔을 뿐일 것이다. 내



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총선 허위 사실·비방 유관기관 대책회의 모습. 대검찰청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뉴스1]

경우는 위원장 인사말까지 직원들이 써주더라. 내용이 선관위 자화자찬 일색이라 수정하러 했더니 직원이 '(사무처) 국장님 아시면 큰일 난다'고 울먹이더라. 그래서 문안은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내용을 고쳐 말했다. 난 한마디로 '바지사장'이었다. 사무처가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결사 반대하는 건 인사·재정 등 업무는 자신들이 장악하고,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위원장에 전가하기 딱 좋은 게 비상임 위원장제라서다."

## 선관위 출신, 1급 상임위원 '독점'

신우용 제주 선관위 전 상임위원은 2021년 자녀에게 서울시 선관위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줬고, 자녀는 아버지의 동료에게 면접 본 끝에 채용된 것으로 선관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신 전 위원은 기초실장 등 요직을 두루 지낸 '선관위맨'이었다. 이에서 보듯 제주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1급)은 선관위 출신들이 독점해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선관위법은 시도 상임위원을 ▶5년 이상 경력 법조인이나 ▶부교수 이상 학자 ▶2년 이상 근무한 3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지명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7년 이상 선거·정당 사무에 종사한 4급 이상 공무원'을 시도 상임위원에 지명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사무처는 이를 근거로 전국 시도 상임위원직에 내부 출신을 채워왔다. 외부 개방형 위촉을 원칙으로 한 선관위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 지적했다. 한 전직 선관위원은 "사무처가 퇴직 간부들을 지방 선관위 수뇌부에 꽂아 17개 시도, 251개 구시군, 3505개 읍면동 선관위를 장악했으니 특혜 채용 등 비리가 판치는 데도 선관위원장은 들러리만 서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전직 선관위원은 "선관위 간부들이 선거 관리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정당들의 법령 자문이나 활동 지원에 역량의 상당 부분을 쏟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대응'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이런 활동은 선관위의 대 정칙권 인사·예산 로비로 봐도 무리가 없다"며 "중앙선거위에 배치된 우수 인력 수백명이 이런 로비에 동원되며 일선 시군구 선관위의 역량은 하락해, 선거 때 부실 관리 논란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1963년 직원 348명으로 출범한 선관위는 61년 만에 직원 3000명에 예산 8700억원의 공룡조직이 됐다. 연간 4000건씩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이 비상임 수장을 맡아 지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법을 개정해 각급 선관위에 상임 위원장 1인을 두는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 중앙선거위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임명한 선관위원 1명씩 2년마다 돌아가며 상임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직 선관위원은 "헌법은 중앙선거위원 9명 중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을 정하게 했을 뿐인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돼왔다. 말이 안 된다. 퇴직한 법관이나 교수 등 선관위 업무만 전념할 수 있는 인사로 상임위원장을 지명해야 한다"고 했다. **강찬호 논설위원**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 정선화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24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우리말 바꾸기

‘결실’은 ‘거두자’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코스트코의 인기와 한인 마켓



이은영  
LA중앙일보  
경제부 부장

지난해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슈퍼마켓은 코스트코였다. 크레이그 젤리넥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은 코스트코는 1976년 설립된 글로벌 대형 할인 유통업체다. 회원제 창고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식품, 가전, 의류, 가구, 생필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연례 고객만족도 지수 조사에서 퍼블릭스, H-E-B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며, 마켓 부문에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켰던 트레이더즈를 밀어냈다. 매장 구조, 운영시간, 상품 선택, 직원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만족도 점수에서 코스트코는 100점에 85점을 받았다. 코스트코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들이 식품 소매통에서 가성비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판매 및 판촉이 탁월하거나 자체 브랜드 제품을 통해 가성비를 높이는 할인점에 고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신호다.

경기 둔화에도 코스트코의 기업 가치는 견고하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2월 초 주당 500달러대였던 주가는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에도 주가가 전일 대비 0.52% 오르며 723.53달러를 기록,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트코의 이전 52주 최고가는 723.32달러, 최저가는 465.33달러였다.

코스트코가 슈퍼 스타 주식으로 급부상한 이유로는 경기 둔화에도 할인 가격으로 높은 고객

충성도를 유지한데다, 식품 매출 증가, 골드바의 기록적인 판매 등이 꼽힌다. 고객 충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회원 갱신율은 90%에 육박한다.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한 물가상승에도 인기 식품들의 경우 이전 가격을 고수해 고객 유지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유명한 로티세리 치킨은 여전히 4.99달러, 핫도그 폼보는 1.5달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골드바의 경우에는 분기당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리처드 갈란티 코스트코 최고재무책임자(CFO)도 “회원들의 신뢰를 얻는 원동력은 최저 가격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트코의 1위 등극은 경기침체에도 할인 프로모션에는 고객들이 지갑을 연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슈퍼마켓 뉴스가 실시한 2024 소매업체 설문조사에서도 ‘할인 프로모션’은 매출 증가를 위해 소매업체들이 선택한 최고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소매업체의 56%는 향후 1년 동안 경기침체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격 조정이나 할인, 프로모션, 디지털 마케팅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들의 매출 증가 전략은 구체적이다. 분기별 고객에게 가격 비교 리뷰를 제공하고 매장에도 게시한다. 직원 재교육을 통해 고객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세심하게 서비스하도록 고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 또 소비자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전략적 가격 책정도 집중한다. 한 마켓 관계자는 “도매업체나 유통업체에 스페셜 할인 등을 요구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더 자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인기 제품은 앱에서 쿠폰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할인 식품 및 마켓 업계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격적인 할인을 진행하면 할인 품목만 구입해 객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높은 멤버십 갱신율과 고객 충성도의 첫째 이유가 최저 가격 제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코스트코에는 로티세리 치킨이나 핫도그처럼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에도 과거와 동일한 가격의 제품이 매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고객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할인 마켓도 충성도 높은 고객의 신뢰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하고 전략적인 할인 프로모션과 한인 마켓 스타일의 로티세리 치킨과 핫도그 등이 필요할 때이다.

이 아침에

동치미



김영애  
수필가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아 무를 썰기 시작한다. 먼저 동그런 몸체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고, 다시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잘게 썰어 간다. 우리 부부의 손놀림은 사이좋게 크고 작은 블록 모양의 집들을 차곡차곡 짓고 있는 것 같다.

도마 위에 직사각형 모양의 집들이 적당히 지어지자, 그것들을 소금에 절인다. 방아 수단이 약한 생명체는 생명을 지켜내기 힘들 듯, 자연 그대로인 무도 방아막이 될 짹짹한 소금이 들어가야만 몸이 산화하여 공중분해 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으리라.

시원한 동치미로 탄생하기 위해서 무는 더 이상 고유의 순수성만을 고집하지 못한다. 소금과 아우러져 자신의 몸에 짹짹한 기운을 허락해야만 동치미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동치미 무에 짹짹한 간 이 들어갔는지 무의 몸이 꾸들꾸들해졌다. 소금을 덮어쓴 그것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자신을 연마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

투명한 병에 무 조각들을 넣고 열은 소금물을

부어 가득 채운다. 그 위에 생강과 고추, 그리고 마늘과 파와 배를 띄운다. 생강과 고추는 매운맛과 쓴맛을 내지만 삶에서처럼 면역을 높여 주고, 파와 마늘은 필요한 향을 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거기에 단맛과 시원함을 더해주는 배까지 넣었으니 개운하고도 상큼한 동치미가 탄생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렇게 매운맛과 쓴맛, 또 달콤함과 상큼함에 향기까지 더했으니 동치미는 우리의 삶과 닮은꼴이면서 지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청량제라 하겠다.

생각해 보면, 동치미 무와 같은 직사각형은 곳곳에 존재하는 것 같다. 하루를 마치면 직사각형 모양 집에서 직사각형 침대에 누워 달콤한 수면

을 취하고, 날이 밝으면 각지고 네모난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가. 그것은 직사각형 모양 자체가 달하지도 더하지도 않게 반듯한 한계를 인정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직각을 유지하기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까닭일 것이다.

동치미 무가 직사각형 모양인 이유는 균일하게 잘라 놓은 것을 하나씩 씹으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또 직사각형의 정직하고도 반듯한 각처럼 단정하고도 반듯한 삶을 만들고, 양변이 만나 만든 직각처럼 무너지지 않게 몸과 마음을 챙기라는 의미일 듯도 싶다.

마침내 창가 양자쪽에서 묵은 종이던 독에서 작은 기포들이 뽀글뽀글 올라온다. 동치미가 숙성하여 발효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우리 삶도 세월 속에서 숙성되고 발효되어야만 성숙하며 익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닐까.

남편과 둘이서 담근 작 일은 동치미를 먹으며, 문득 나의 영혼도 이 동치미처럼 삶 속에서 제대로 숙성되고 발효되어 가지를 돌아본다.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동치미처럼 지치고 힘든 세상에서 청량제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다.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13.9%	42.9%	2.3%	0.0%
매우 좋음	양호	노화 시작	주의	나쁨	매우 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Sciatica  
좌골신경통

영치

얼드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펴기 힘들다

손가락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뻠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잡지 못지 못함  
방아쇠  
피지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만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필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 미국과 유럽 뒤흔드는 '이민 갈등'... 한국도 남의 일 아니다

오는 11월 치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취임하면서 멕시코와 접경한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 대규모 장벽을 건설해 불법 이민을 원천봉쇄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이후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등 줄곧 포용적 이민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백인을 밀어내고 경제·사회 주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거대 대체 이론(Great Replacement Theory)'이 바이든 대통령의 유화적 이민 정책을 흔들고 있다.

## 미국 불법 입국자 하루 1만명 넘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집권 기간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한 횟수는 점차 증가해 지난해 말 하루 1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에 포용적이던 기존 정책 노선을 바꿔 중남미 이민자 차단을 위해 국경 장벽을 추가로 건설하고,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 조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민자가 너무 많이 몰리면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입장까지 밝혔다. 이민에 유화적이던 민주당조차 여론에 밀려 보수적으로 급진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며, 자신을 비판했던 바이든이 사과해야 한다고 조롱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외치는 대표적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핵심에 반(反)이민자 정책이 있다. 이처럼 선명한 반이민 정책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민자로 인한 범죄와 사회 불안, 일자리 잠식 등으로 불만이 커진 미국 중도층까지 결집하겠다는 선거 전략도 엿보인다. 2001년 알카에다의 9·11테러 이후 한층 강화된 안전 의식과 종교 및 문화 차이에 대한 이질감도 중도층 결집에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반이민' 스웨덴민주당 선거 돌풍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기는 유럽도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외국 출신 이주민 대규모 추방에 반대하는 10만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휴대전화로 독일 연방 국회의사당 앞 광장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스웨덴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은 나라로 유명하다. 인도주의에 따라 통 큰 난민 정책을 펼치던 인구 1050만 명 중 외국 태생이 200만 명이나 된다. 그러나 난민을 대거 수용한 데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 발칸반도와 중동 출신 이민자들의 총기 관련 강력 범죄, 마약 밀거래 등으로 스웨덴은 '유럽의 총기 살인 수도'라는 오명을 얻는 지경이다. 이민자 수용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하는 사회통합에도 실패했다. 사회 전반의 신뢰가 떨어지고 나라는 쪼개져 일체감 있는 국가로 존재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규모 이민에 너무 순진하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선거에서 반이민 정책을 내건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이 표몰이를 하면서 우파 정당 중에 최대 의석을 차지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00년 만에 극우 성향 총리가 탄생했고, 독일에서는 소수정당이던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2위까지 뛰어올랐다. 그 배경에는 빠르게 퍼지는 반이민 정서가 있다. 출발점은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온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과감한 이민자 포용정책을 펼쳤는데, 지금 큰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달 독일에서는 극우정당이 이민자 추방 계획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혐오와 극단주의, 인종청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난달 150만 명의 독일 시민들은 극우정당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모든 사람은 이민자 배경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노 나치(No Nazis)' 팻말을 들었다.

## 한국도 '이민 반대' 목소리 나와

한국 상황은 어떤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인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외국인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법무부는 가칭 '이민청'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익에 부합하도록 대한민국의 필요를 이민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기준

을 제시했다. 그러나 갈등의 조짐이 없지 않다. 정부 과천청사 앞에는 이민청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민자 수용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반문한다. 이민 정책이 구체화하면 갈등이 구체적으로 분출할 수도 있다.

## 다른 문화·가치 인정하고 공존해야

이주민 정책과 관련된 우려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일자리 경쟁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 기술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우수 두뇌 유치 경쟁(Great Brain Race)'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도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국내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다. 대개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현격히 낮다. 국내 범죄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범죄 비율은 2%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살인과 강도 비율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향후 외국인 범죄의 예방과 원인 분석에 참고해야 한다. 셋째는 문화적 이질감이다. 유럽과 북미 등이 주권을 먼저 받은 국가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을 하나의 사회 문화 속으로 편입하는 동화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용광로(Melting pot)' 안에서 모든 문화를 녹여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일방적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민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새로운 문화와 경험, 가치와 지식 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가 성공적인 이주민 정책의 핵심이다.

다른 문화 가치를 인정하며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는 것,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흔히 샐러드 그릇이나 모자이크 등으로 표현되지만, 'K이민 정책'에서는 비빔밥에 비유하면 어떨까. 각자 있는 그대로도 훌륭하지만 어우러지면 더 맛있는 비빔밥 말이다.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개, 새의 품격

살기 팍팍한 게 한국만은 아닌가 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그의 책을 읽고 삶의 균형을 찾았다"며 추천한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의 최근 뉴욕타임스(NYT) 칼럼의 제목은 이렇다. '슬프고, 외롭고, 화가 잔뜩 나 있고, 비열한 사회를 구원하는 법'. 브룩스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알고 있어도) 굳이 그렇게 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정치에 과몰입돼 있고, 의기소침하며, 생기도 없고 교양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주에 정치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계속 등장한다. 지난달 배현진 의원 벽돌 피습, 2022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망치 피습,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등등. 폭력 영화는 필요 없다. 일상 곳곳에 폭력이 스며들고 있다. 자질한 몰상식도 이젠 일상에 뿌리 내렸다. 버스를 타면서 기사에게는 "안



송미경 작가의 『오늘의 개, 새』(사계절) 중 29쪽.

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던 사람이 다른 승객이겐 "길을 왜 막냐"고 밀친다. 밖으로 나가려 카페 문을 열었더니 바깥에서 먼저 슬쩍 들어오는 '노타치 암체 입성'은 다반사. 비정상적 정서화다. 출퇴근길에선 각박과 우울이 느껴진다.

창밖은 시내 곳곳 나부끼는 정당 플래카드로 눈이 어지럽다. 서로를 비난하는 데 참 열심이다. 물고 뜯을 서로가 없으면 어찌 정치를 했을까 싶을 정도. 브룩스가 제시한 해결의 열쇠는 '문화'에 있다. 그는 문학이나 미술, 공연이 사람들의 메마른 감성을 적셔주고, 인류애를 회복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주장한다. 그가 쓴 책 『인간의 품격』 『두 번째 산』 역시 '나'보다는 '남', '혼자' 아닌 '함께'를 강조한다. 격하게 공감하며 떠오른 책이 있으니, 송미경 작가의 『오늘의 개, 새』(사계절). 평범한 개와 새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한다는 내용이다. 송 작가의 만년필

에서 피어난 개와 새는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다가도, 사과를 나눠 먹다가 뽀뽀를 한다. 개와 새도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라고 못할 게 뭐가. 브룩스의 책 제목처럼 인간의 품격은 인간 스스로 찾아야 할 터.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 사회가 더 사나워질 일만 있을까 걱정될 따름이다. 여와야, 누가 개이고 누가 새인지, 하여튼 개와 새 모두에게 미안한 일이지 하지만, 개와 새를 받아서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 그 흉내라도 내 보길. 개와 새도 하는데, 인간이 못할 쏘냐. 이렇게 쓰고 보니, 못할 것 같아 걱정이긴 하지만. 전수진 투에이·피플팀장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다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infokddc@gmail.com**



시 설

조국 신당, 가당치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창당선언문에선 “4월 10일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고 말했다. 또 “정권을 심판하려면 전 지역에서 윤석열 대 반윤석열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도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과 함께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선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했다.

창당 선언...국회가 무슨 범죄자 도망가는 곳인가 민주당 공동책임 자각하고 문 전 대통령도 자중을

신당을 만드는 것도, 출마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다. 하지만 적어도 조 전 장관만큼은 그럴 자격과 명분이 있는지 의아하다. 그는 지난 7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와 검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끝났고, 대법원은 형량을 조절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무런 사과나 해명 없이 2심 선고 엿새 만에 신당 창당을 통해 총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국회가 무슨 범죄자가 도망가는 곳인가. 맨 앞에서 싸울 게 아니라 제일 뒤에서 고개 숙이고 자성하고 있어야 도모자랄 판인데 말이다.

일국의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의 발상으로서 황당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조 전 장관에게 유죄로 인정된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다. 무슨 정치범 코스프레할 상황이 아니다. 극소수 지지자는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나 이미 대다수 국민은 그 뻔뻔함과 모순을 꿰뚫어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처신도 문제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안에서 함께하기 어렵다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제 많던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장본인이 지금 다시 조 장관으로 하여금 창당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조국신당을 ‘반윤 빅텐트’ 안에 넣을지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 반응이 엇갈리는 듯하다. 상당수는 비판적이지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 인사는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나자”고 말했다. 야권 연대나 빅텐트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언제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예비 범죄자까지 뒷문으로 국회 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건 가당치 않다.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동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정치에는 최소한의 금도, 인간에겐 최소한의 양심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지금 이들 모두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집단행동 시동 걸었지만, 의사는 민심을 이길 수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12일 밤 온라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즉각적인 집단행동을 천명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환자 곁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피해 개별적으로 수련 계약을 거부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88.2%의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답을 받아놓은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도 15일 지역별 권기대회를 열고, 17일 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의사 단체들이 집단 대응을 고수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불편과 생명의 위협에 대한 책임은 의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몇 가지 논리를 내세우지만 대체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의사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결과인 고령화는 의료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증원 규모가 너무 급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과대학들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한도 안에 있다. 늘어난 의사를 필수료 분야와 지역으로 유도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제 막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사항이다.

특히 의사들의 최근 발언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자신했다. 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파업을 언급하며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중환자실 의무기록을 보니 의사들이 자리를 비웠던 수일간 방치됐었다”고 했다. 환자 목숨을 볼모로 공개적인 협박을 한 것이다. 의협 회장 출신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도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 의사들의 특권의식 표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의사들의 자신감은 2022년 파업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무산시킨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 현상이 긴박했던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 정부도 1년 넘게 여론을 수렴하고, 필수료 4대 패키지를 내놓는 등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는 이 같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이 직업 이기주의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집단행동에 앞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부와 협의하는 게 먼저다.

‘건국전쟁’이 말하지 않은 것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영화 ‘건국전쟁’을 보며 문득 공로명 전 외교장관이 전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년이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4·19 이후 하와이로 간 다음 뇌일혈로 쓰러져 오랫동안 미 육군 병원에서 요양했다. 당시 자주 문병했던 이동진 목사에 의하면 말년의 이승만 박사는 영어를 다 잊어버려 한국어로만 통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나는 영어를 잊어버린 이승만 박사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다.”(『나의 외교노트』)

이 전 대통령의 영어 구사력은 남달랐다. 당시 외무부가 경무대(지금의 대통령실)에 올리는 문서를 영문으로 작성했을 정도라고 한다. 건국과 한국전,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으로 이어진 격랑의 외교 속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영어는 빛났다. 그런데 영어를 잊었다? 하키야 우린 건국(nation building) 과정에서 그의 분투를 잊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의 마지막에 대한 동시대 지식인들의 기억은 썩 좋지 않다. 당시 현장 기자였던 조용중은 ‘이승만 12년 왕조’라고 했다. 1954년 4사5입 개헌부터 59년 조봉암 사형으로 이어진 50년대를, 이승만 독재를 지탱하기 위한 격동의 연속이라고 봤다. 다만 조용중은 4·19 직후 부산 데모대를 지켜보던 야당의원이 “여보, 조 동지, 저건 난동이야. 지금은 아직 이 대통령이 있어야 돼. 학생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다. 때 아무런 이론(異論)을 달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건국 과정의 냉철한 관찰자였던 미국 외교관 그레고리 헨더슨의 시각도 미묘하다. 리더십은 인정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반면, 이승만은 방향감각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에 대한 후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간에, 또 민주주의 수행에 그가 과연 진실성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리고 그의 경제적 지식 결여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난 지도자였다. 당시 혼란했던 정세 아래서 철수를 단행한 미국으로선 이러한 인물을 발견한 것이 행운이었다.”(『소용돌이

의 한국정치』) 통치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개념을 지지하지 않았고, 행태도 일본 것 그대로였다고 봤다. 정치적 기능과 정신은 조선시대의 현 대판이라고 인식했다. 특히 부정부패를 두둔 “당시 다방가에 유포되던 소문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 때 각료 129명 중 재임 중 재산을 늘리지 않은 건 단 두 명인데, 한 명은 어리석음 정도로 정직하고 금욕적이었던 변영태 외무장관이었고, 한 사람은 재임 기간이 너무 짧아서 미처 이권에 손댈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건국전쟁’이 다큐멘터리라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이가 많다. 엄밀하게 보면 취사선택한 사실의 나열이다. 상당 부분 맥락이 소거된 채다. 덕분에 이 전 대통령의 공은 크게 증폭됐고, 과는 크

자학적 사관의 콘텐츠 양산되던 중 이승만의 공 크게 부각한 다큐 인기 역사는 선악문제 아냐, 진영화 곤란

게 축소됐다. 이승만 정권은 놀라운 성취 못지않게 재난적 말로를 보였다. 다큐는 진실의 일부분을 보여줄 뿐이다.

그렇더라도 불편하기보단 반가웠다. “(영화판에) 좌파가 99.9%”란 김덕영 감독의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해 자학하는 내용의 콘텐츠만 양산됐기 때문이다. 교과서까지 그러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실관람평에서 ‘어디까지 진실인지 혼돈스럽다. 내가 배운 역사와 너무 달라. 진실이라면 교육 당국 사형시켜야 함’이란 글을 봤다. 이해한다. 지금 현대사는 진영전의 무기다. 이 전 대통령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정당이 원내 1당이다. 그 당의 원내대표는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란 말도 했다. 이승만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한 모양이다. 역사는 선 또는 악 사이 택일이 아니다. 그사이 어디쯤이다.

다큐의 엔딩 크레디트가 울라갈 무렵 극장 안 곳곳에선 울음소리가 들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리, 정상은 아니다.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p>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제1차 인쇄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p>	<p>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	--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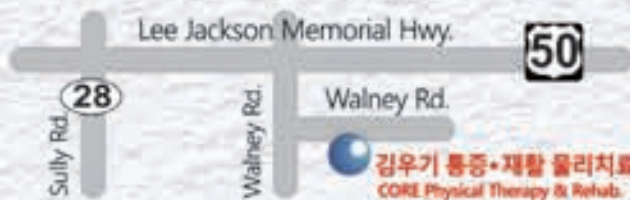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February 14,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덱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내 나이가 어때서” 젊다는 생각, 열대야에도 꿀잠 부른다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점점 빠르게, 자주 오고 있다. 작년에는 100년이 넘는 기상 관측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 지역 6월 열대야’가 발생했고 올해도 이 현상이 이어졌다. 열대야 일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연 평균 약 4일에 불과했던 열대야 일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에 이르러 평균 9 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열대야(熱帶夜)’는 일본에서 처음 쓴 용어라고 한다. 일본 기상청 예보관 출신의 기상캐스터가 사용한 용어인데 이후 일본 기상청이 ‘하루 최저 기온이 25도인 날’로 정의하며 공식화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을 들여와 사용하다 2009년 기상청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 시 사이의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것’을 열대야라고 재정의했다. 온도가 높으면 밤에도 뇌가 각성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것이다.

하루 8시간 못 자면 뼈에 악영향  
양질의 수면을 하지 못하면 신체는 낮에 받은 피로를 풀고 손상된 신체를 회복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 신경과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체내에 염증이 있음을 나타내는 염증 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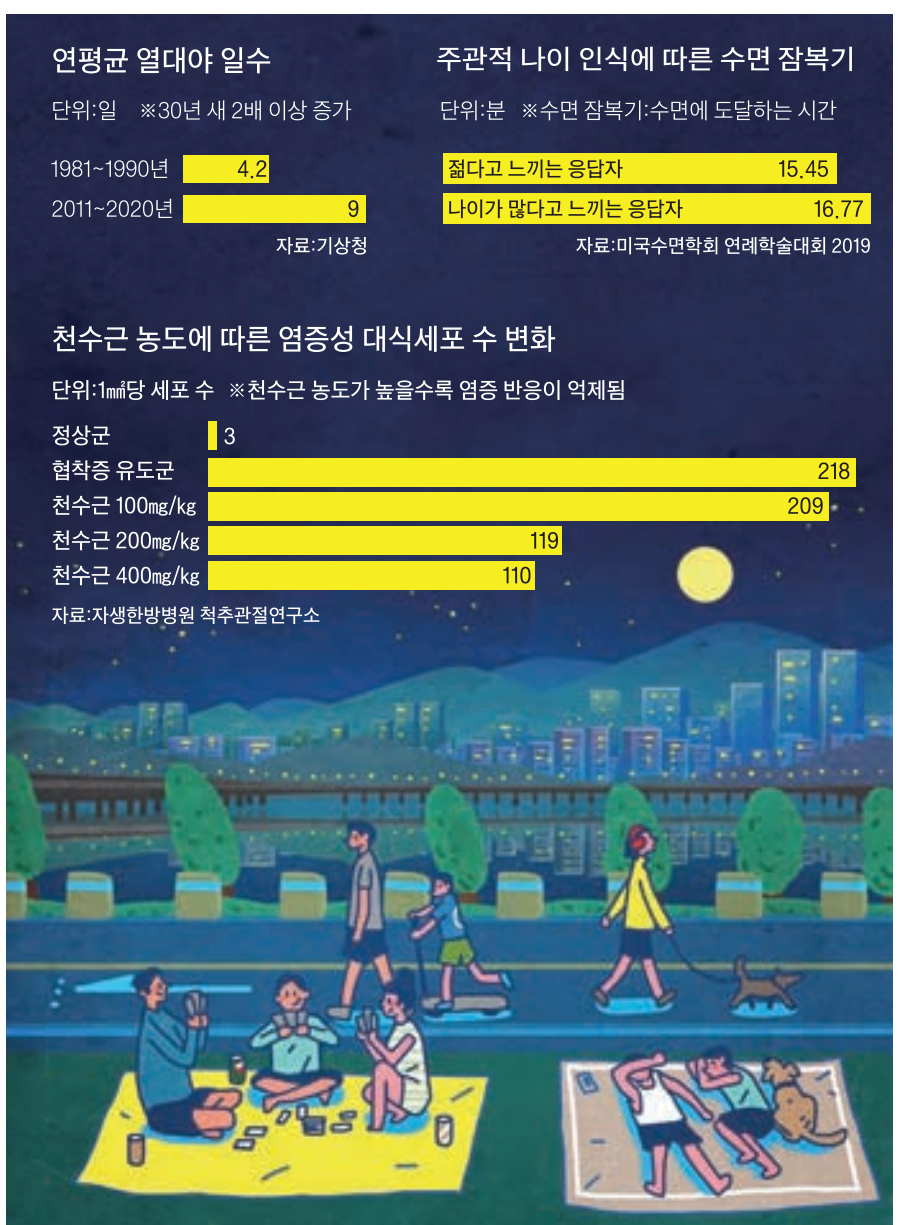
심한 염증은 통증과 관계가 깊다. 특히 하나 밤에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통증이 증가하게 된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다수의 환자가 밤에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데 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야간통도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곤 한다.

수면 부족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만약 하루 8시간 정도의 적절한 숙면

날 더워지면 뇌가 각성 상태 유지  
양질의 수면 못해 염증·통증 악화  
젊은 마인드, 수면의 질 향상 입증  
가벼운 산책·키위주스도 숙면 도와  
불면증 시달리면 침 치료 효과적

을 취하지 못한다면 뼈 건강에도 악영향이 간다. 뼈를 재생산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칼시토닌’ 호르몬 분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칼시토닌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칼시토닌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뼈를 이루는 칼슘이 빠져나오면서 뼈가 얇아지고



잘 부러지게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 몸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또다시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 흥분 등 감정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을 끊어주기 위해선 생활 습관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거창한 계획이나 실천이 아닌 건강하고 젊게

살려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나이가 많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어리거나 같다고 느끼는 응답자에 비해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8%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우 울산자생한방병원 병원장 >> 2면 ‘열대야에도’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아름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 암 예방 HPV 백신 접종해도, 자궁경부암 검사 2년마다 꼭 받아야

**여성 질환 건강 상식 5**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월경·임신·출산·폐경을 겪으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 여성의 몸은 여성호르몬에 의해 성장하고, 아프고, 늙는다. 최근엔 초경이 빨라지고 임신·출산은 미루면서 여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 자궁내막암에 걸릴 위험이 커졌다. 성(性) 접촉 연령도 낮아지면서 안전한 피임 실천과 HPV 예방도 중요해지고 있다. 아이에서 여성의 몸으로 변화한 이후 기억해야 할 여성 질환 건강 상식을 짚어본다. 권선미 기자

**HPV 백신을 접종하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HPV 백신을 접종했다면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세포검사, HPV 유전자 검사 등 자궁경부암 검진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 같은 고위험 HPV의 백신 예방 효과는 90% 이상으로 높다. 그런데 HPV 백신이 모든 유형의 HPV를 완벽하게 막지는 못한다. 백신으로 막지 못하는 다른 유형의 HPV에 감염될 수 있다. 게다가 HPV 백신 접종 이전에 이미 감염된 HPV는 예방하지 못한다. HPV는 5명 중 4명의 여성이 일생에 한 번은 감염되고, 체내에 10년 동안 아무 증상 없이 존재할 수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이재관 교수는 “HPV 백신을 접종하고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궁경부암 예방 전략”이라고 말했다.

**흡연자가 복합 경구피임약을 먹으면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

여성 흡연자가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복합 경구피임약을 먹으면 심근경색·뇌졸중 등을 유발하는 혈전 생성 위험이 커진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성훈(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 회장) 교수는 “복합 경구피임약은 혈관 내벽의 안전성을 떨어뜨려 혈전

이 잘 만들어지게 하는데, 담배의 니코틴 역시 혈소판 응집력을 키워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혈전 생성 위험성은 나이와 흡연량(1일 15개비 이상)에 따라 증가하는데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서 현저하게 커진다. 35세 이상 여성 흡연자 1년 이상 장기 피임이 필요하다면 체내 삼입형 피임약(미레나·임플라논 등)을 고려한다.

**폐경인데 하혈하면 암이다**

강력하게 자궁내막암을 의심해야 한다. 자궁내막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80~90%는 폐경 이후 하혈, 질분비물 증가 등 증상을 겪는다. 노원을지대병원 산부인과 권소정 교수는 “폐경이 된 지 12개월이 넘었는데 월경(생리)처럼 하혈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폐경 이후 난소 기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폐경 이후 하혈을 하면 반드시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폐경 전이라도 하혈량이 많거나 월경을 일주일 이상 할 때도 주의한다. 최근 초경이 빨라지고 임신·출산 경험이 줄면서 여성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져 자궁내막암 발병 연령이 어려워지고 있다. 하혈량과 다름 비정상적인 질 출혈 증상이 있다면 질 초음파로 자궁내막 상



태를 살펴본다.

**유방암에 걸리면 난소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

유방암·난소암 유전자로 유명한 BRCA 돌연변이가 있을 때다. 일산차병원 부인종양센터 노주원 교수는 “BRCA 변이가 확인된 경우엔 유전적 연관성으로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모두 증가한다”고 말했다. 전체 유방암의 5~10%, 난소암의 10~15%는 BRCA 변이와 관련이 있다. BRCA 변이 유전자는 상염색체 우성 방식으로 유전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BRCA 변이가 있으면 성별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50% 확률로 유전된다. BRCA 변

이가 있는 남성은 전립샘암, 남성 유방암 위험이 커진다. 유방암·난소암에서 BRCA 변이가 발견됐다면 가족이 모두 BRCA 유전자 검사를 고려한다. BRCA 변이가 있다면 암 진행을 억제하는 파르(PARP) 저해제로 치료할 수 있다.

**자궁근종을 제거하고 나서 곧바로 임신이 가능하다**

자궁에 생긴 양성 종양(혹)인 자궁근종을 떼어 낸 직후에 임신도 시도하면 자궁 파열 위험이 존재한다. 로봇·복강경·개복 등 수술적 방식으로 자궁근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벌어진 부위를 봉합해야 한다. 그런데 자궁근종

수술 후 상처가 완전히 낫기 전에 임신하면 태아가 자라면서 그에 맞춰 자궁이 부풀어 오르다가 덜 아문 수술 부위가 터질 수 있다. 자궁근종 수술 후에는 상처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3~6개월 동안은 피임해야 한다. 출산할 때도 힘을 주는 분만 과정에서 자궁이 파열할 수 있어 제왕절개를 고려한다. 민트병원 여성의학센터 김하정 원장은 “가임기 여성에게 흔한 자궁근종은 하혈·통증 등으로 불편감이 크거나 갑자기 커질 경우에는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궁근종은 제거해도 또 생긴다. 증상이 없고 크지 않다면 6~12개월 간격으로 상태를 추적 관찰한다.

**1면 ‘열대야에도’에서 이어집니다**

수면 효율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적절한 실내온도와 신체활동도 숙면에 영향을 미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열대야가 심한 날에는 적절한 냉방을 가동하는 것이 컨디션 관리와 수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될 수 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덥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에어컨만 켜고 있는 것은 지양하자. 해가 강하지 않은 이른 저녁 시간이라도 가볍게 산책을 해주는 것이 수면과 건강에 긍정적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칼슘과도 관련이 깊다. 칼슘은 영양제 섭취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햇

살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해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것을 권장한다.

더운 날이면 자주 찾는 시원한 음료도 가려 섭취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 많이 포함된 커피, 또는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의 배출을 촉진하므로 지양하자. 그보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염산 등 영양소를 함유한 케모마일 차 또는 염증을 줄여주는 비타민 C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포함된 키위주스를 추천한다. 키위에는 수면을 돕는 세로토닌도 들어있다.

수면 전 더위를 떨쳐내려는 행동들도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시원한 맥주를 즐긴다거나 찬물로 샤워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알코올이 몸

에 들어가면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가 활성화돼 신체가 진정 및 이완된다. 덕분에 술을 마시면 빨리 잠들 수 있다. 하지만 수면으로 들어가는 시간만 단축될 뿐이다. 수면 직전 냉수 샤워 또한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한다. 따라서 취침 1~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간단하게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잠자기 전 찬물 샤워·맥주 피해야**

생활 습관 관리와 더불어 전문적인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침 치료가 불면증 치료에 많이 활용된다. 한국한의

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품질 카페인을 투여해 과각성 상태를 만든 쥐에게 침 치료를 실시하자 수면에 영향을 주는 소포체 스트레스가 완화됐으며 렘수면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통에 시달리는 척추·관절 환자들에게는 맞춤형 한약 처방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산화의학과 세포 수명(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천수근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세포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수근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쓰이는 처방인 청파전의 주요 약재다.

연구팀은 손상된 쥐의 척수 세포에 천수근을 3가지 농도로 나눠 처리한 뒤 관찰했다. 그 결과 천수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신경돌기가 끊어지거나 사멸된 세포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도 천수근이 면역 작용을 촉진해 염증반응이 억제된 결과가 확인됐다.

최근 만 나이 도입으로 전 국민이 1~2살 어렸었다. 이번 기회에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몸이 쉬이 늘어지더라도 오늘부터만큼은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켜 보자.

김동우 울산자생한방병원 병원장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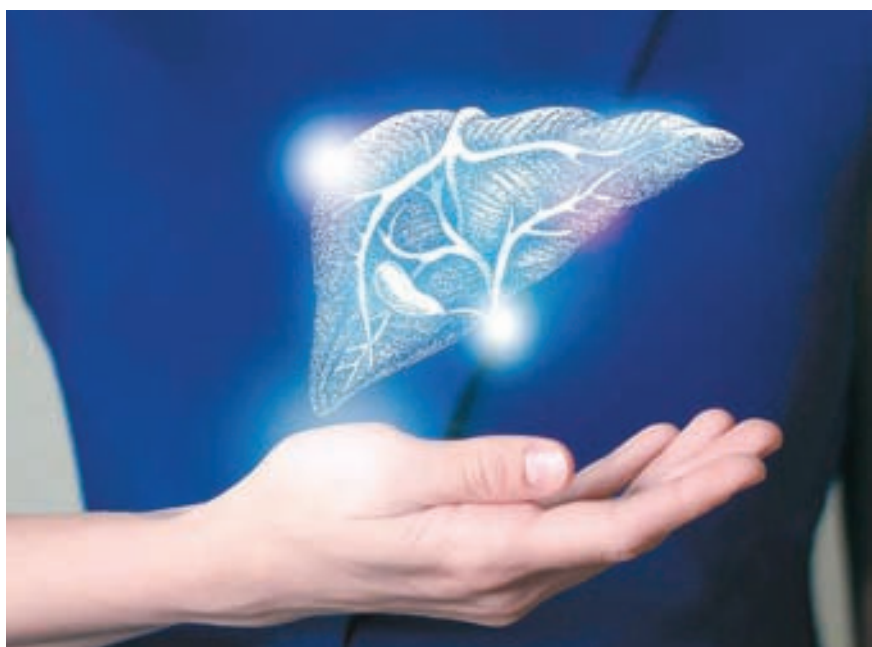


#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보다 더 치명적... 간 수치 정상도 방심은 금물

**간염 오해와 진실** 간염은 폐암에 이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암이다. 한국인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다. 간을 파괴하는 간염 바이러스는 술로 인한 간 손상보다 흔하고 치명적이다. 간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B·C형 간염 바이러스는 20여 년에 걸쳐 서서히 간세포를 손상하면서 간경변증·간암으로 진행된다. 한국인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간염에 대한 건강 상식을 짚어봤다.

권선미 기자

**✗ 술 안 마시면 간염에 걸리지 않는다**  
대표적인 오해다. 술이 간 손상을 유발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간염 환자 10명 중 6명은 술이 아닌 간염 바이러스를 방치하다 간암으로 진행했다. 대한간학회에서 발표한 간질환백서에 따르면 간염 환자의 58.1%는 B형 간염 바이러스, 8.2%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의 원인이었다. 알코올이 간염을 유발한 경우는 16.8%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는 새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간이 손상될 수 있다. B형 간염은 출산 과정에서 수직 감염되는 비율이 높다. C형 간염은 타투, 피어싱, 사혈침, 주사 찔림 등 일상 속 침습적 행동으로 감염된다. 한림대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김성은(대한간학회 홍보이사) 교수는 “40세 이상 성인이면 건강검진 때 B·C형 간염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구분하는데, 국내에는 A·B·C형 간염 발생이 흔하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송병근 교수는 “예방 백신이 있는 것은 A·B형 간염뿐”이라고 말했다. C형 간염은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백신을 접종했다더라도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한국에서 모

든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이다. 전염력이 강한 급성 A형 간염 백신이 이보다 더 늦은 2015년에야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됐다.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A형 간염에 취약한 2040대 성인은 A형 간염의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이 아니다. 술잔 돌리기, 오염된 음식물 섭취

등을 통해 전파되는 A형 간염은 성인이 됐을 때 걸리면 전격성 간부전 등 심각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40세 이상으로 A형 간염 항체가 없다면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있으면 간 관련 사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됐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조영운 교수는 “간 섬유화 등이 확인되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적극적 약물치료로 추가적인 간 손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형 간염은 항바이러스 치료로 간경변증 발생 위험은 65%, 간암 발생률은 절반가량 낮출 수 있다. 참고로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간에 염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간 섬유화 등 간 손상이 심한 상태라면 더는 파괴할 간세포가 없어 간 염증 반응이 줄면서 간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

**○ 완치 가능한 간염도 있다**  
C형 간염이다. 예방 백신은 없지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으로 완치 가능하다. 항바이러스 치료 8~12주 만에 무려 98~100%의 완치율을 보인다. 이를 통해 간경변증·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한다. 다만 완치를 위해서는 간 섬유화가 누적돼 나타나는 간경변증이 나타나기 전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치료가 늦으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없애더라도 간 손상이 남아 간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중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C형 간염 선별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강검진 때 C형 간염 검사를 추가하는 등 내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 비만인 사람은 간염 발생 위험이 더 크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의해서다. 노원 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안상봉 교수는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간에 지방이 축적돼 간에 염증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위험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당뇨병 등으로 간세포에 지방이 침착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늘어나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세포가 파괴된다. 대규모 추적 관찰을 통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간암 위험이 무려 17배나 높았다.

**○ 간 수치 정상인 비활동성 B형 간염도 치료해야 한다**  
새롭게 주목하는 개념이다. 간염 보균자는 바이러스 증식이 거의 없는 비활동성이고 간 수치가 정상 범위 이내라도 간이 딱딱하게 변하는 간 섬유화가

**✗ 어렸을 때 간염 예방 백신을 맞았다면 안전하다**  
간염 바이러스는 원인 바이러스의 혈청형에 따라 A·B·C·D·E형 간염으로

## 가슴 수술해도 수유 문제없어, 냉동 모유 전자레인지로 녹이면 면역 성분 파괴

**✗ 가슴을 성형하면 모유 수유를 못한다**  
가슴 성형 수술을 하고 나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유는 유선에서 만들어지는 유즙이다. 가슴을 성형할 때 쓰는 보형물은 조직과 근육 사이에 삽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선 조직과 분비 경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모유 수유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가슴 축소 수술로 유선 조직이 손상되거나 유방암으로 유선 조직을 제거해야 할 때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남아 있다면 모유에도 포함될 수 있다. 모유를 통해 알코올에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아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는 피한다. 꼭 술을 마시고 싶다면 수유 혹은 유축 직후에 마신다. 또 아이에게 전달되는 알코올의 양을 줄이기 위해 술을 한 잔 마시고 나서는 적어도 2시간 지난 다음 수유를 한다. 가장 좋은 시간 간격은 4시간 이상이다.

다. 대신 55도 미만의 따뜻한 물에 용기를 담아 중탕하면 모유를 데울 수 있다. 참고로 한 번 얼렸던 모유는 녹이면 24시간 정도까지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다시 얼려서는 안 된다. 모유를 냉동할 때는 반드시 멸균 처리되고 밀봉이 가능한 용기에 넣어야 하며 용기에는 날짜를 기록해 먼저 보관된 모유부터 먹인다.

한 아이는 요람 안기 식으로 안고 다른 아이는 머리가 쌍둥이 형제의 배 위에 오게 해 옆구리에 끼는 방법이다.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엄마의 손목이 꺾이거나 비틀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기가 불편해하거나 자주 토한다면 트림을 시켜주는 게 좋다. 이때는 아이의 몸을 세워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도와준다. 아이 상체가 엄마의 어깨 위에 걸쳐지도록 하고,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받친 뒤 다른 한 손으로 아기의 등을 쓰다듬거나 토닥이는 식이다.

**✗ 맥주를 마시면 모유량이 늘어난다**  
맥주를 마시면 모유량이 증가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알코올을 섭취하면 오히려 수유량이 줄어들고 모유의 맛을 바꿔 아이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더욱이 혈중 알코올이

**○ 냉동 모유는 전자레인지로 녹이면 안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모유는 실온, 냉장실, 냉동실 등에 저장할 수 있는데 냉동실에서는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얼린 모유를 해동하려면 수유 전날 냉장실에 넣어두면 된다. 냉동된 모유가 녹는 데는 12시간가량 걸린다. 이때 모유를 해동하거나 데우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모유의 면역 성분 등이 파괴될 수 있어서

**○ 쌍둥이도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을 통한 다태아 출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쌍둥이를 낳으면 모유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지레 짐작해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능한 일이다. 모유량은 아기의 필요량에 따라 만들어져 쌍둥이, 네쌍둥이에게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고 보고되기 때문이다. 쌍둥이에게 모유를 줄 때 대표적인 자세는 요람 안기 식 자세와 옆구리에 끼는 자세를 결합한 자세다.

**✗ 물젖이면 묽은 변을 본다**  
잘못된 정보다. 엄마 중에는 아이가 묽은 변을 보면 모유가 영양가 없는 ‘물젖’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유를 먹는 아이는 하루에 수차례 묽은 변을 조금씩 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배변이다. 또 6주 이하의 아기가 하루에 두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대변을 본다면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번 배출하는 양이 적다면 대변 횟수는 더 잦을 수 있다.

**Tip**

**올바른 수유와 잘못된 수유 방법**

**올바른 수유**

- 아기가 턱과 코를 엄마 가슴에 기대고 있다.
- 아기의 입술이 뒤집힐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린다.
- 규칙적으로 삼키는 소리가 들린다.
- 가능한 큰 범위의 유륜을 입에 넣는다.
- 처음 몇 번의 수유 후에는 젖꼭지가 편안하다.

**잘못된 수유**

- 깊고 규칙적이 아닌 가볍고 빠르게 본다.
- 젖꼭지와 유륜을 구강 깊숙이 넣지 않고 젖꼭지만 빨고 있다.
- 아이의 뺨이 안쪽으로 말리거나 고음의 소음이 들린다.
- 수유할 때 통증이 있거나 젖꼭지에 상처가 생긴다.

자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 모유 수유 후 트림을 시켜야 한다**  
대체로 모유 수유 후에는 트림을 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아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탁,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칼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 고난도 전체 임플란트, 환자 맞춤형으로 편안하게 오래 사용

## 병원 탐방

###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했다. 치아도 그렇다. 있을 땐 몰라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면 빈자리가 크게 다가온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장애, 영양 불균형을 겪는 건 물론 이가 없으니 미관상 문제로 자신감을 잃기도 쉽다.

임플란트는 상실한 치아의 대체재로 선호도가 높다. 서울 강남의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은 20여 년간 이 같은 임플란트 치료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그중 상당수가 고난도 전체 임플란트 수술이다.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의 윤준상 원장은 “9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이체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맘 편히 먹어보고 싶다면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 임플란트 치료 기간 3개월 이상 단축

전체 임플란트는 무(無)치아 환자 등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이들에게 적용한다. 아래턱에 8~10개, 위턱에 10~12개의 픽스처를 심어 전체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자연 치아의 80% 수준까지 씹는 힘을 회복할 수 있지만, 수술 범위가 넓은 만큼 환자의 부담도 크다. 그중 하나가 치료 과정에서 체력적 부담이다.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은 이 점을 감안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잇몸 뼈 상태가 양호하면 기능을 상실한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까지 심는 방식이다. 90~120분 만에 위아래 전체 임플란트 치료가 이뤄져 전체 수술 기간이 3개월 이상 줄어든다.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의 윤준상 원장은 “임플란트 수술 만족도를 높이려면 의사의 경력과 치과의 업력, 사후 관리 시스템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동하 객원기자

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자연 식립으로 인한 골 흡수도 예방할 수 있다. 윤 원장은 “전체 임플란트 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골조직과 신경의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하고 정확성과 안전성이 높은 수술 경로를 찾아 적용하는 치료 방법이다. 최소 절개 수술로 출혈과 부기, 통증 같은 후유증이 적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

더불어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복용 중인 골다공증 환자라

면 임플란트를 할 때 자칫하면 턱뼈 괴사 등을 겪을 수 있다. 윤 원장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바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약 복용을 중단한 다음 수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 치아별 기능·심리적 측면 모두 고려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에서는 임플란트 치료 만족도를 높이려 치아별 특성도 신경 쓴다. 앞니의 경우 기능뿐 아니라 말하거나 웃을 때 쉽게 노출돼 심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잇몸 뼈가 얇다는 특징도 있다. 이 점에 유의해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은 주변 치아와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앞니 임플란트의

색상과 형태를 고른다.

윤 원장은 “임플란트 식립 각도도 꼼꼼하게 확인한다”며 “각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빠드럼나처럼 보이거나 임플란트가 바깥으로 비쳐 잇몸 밑이 까맣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긋나는 강한 저작 활동이 많이 이뤄지는 부분”이라면서 “잇몸 뼈가 튼튼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해 센 힘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임플란트를 최대한 오래, 안정적으로 쓰고 싶은 건 모든 환자의 바람이다.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은 임플란트 수명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환자별 맞춤 지대주를 제작, 적용

한다. 지대주는 치아 모형의 보철물인 크라운과 뿌리 부분인 픽스처를 연결하는 장치다. 기성품과 달리 환자의 잇몸 라인을 고려해 지대주를 만들면 잇몸과 보철물 사이의 공간을 줄여 이물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이 끼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씹는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 보철물 파절도 방지해 준다. 여기에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은 임플란트 식립 후 관리를 위한 보정제도 시행 중이다.

임플란트 수명을 연장하려면 환자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임플란트 후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임플란트 주위염이다. 식립한 보철물 주변에 생기는 염증 질환이다. 임플란트는 인공 치아라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염증이 취약하고 신경 조직이 없다.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없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우니 잘 살펴야 한다.

윤 원장은 “만약 잇몸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악취가 나거나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난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려면 평소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고 치실이나 치간칫솔 등을 이용해 치석과 치태가 쌓이지 않게 매일 관리해 준다. 정기적인 치료 검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윤 원장은 “본인 판단에 ‘이 정도면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어야겠다’ 싶어 치과를 찾으면 이미 잇몸 뼈가 다 녹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치료 기간과 비용, 통증 모두 가중되니 조금이라도 치아 상태가 나빠졌을 때 바로 병원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수기자

기고 김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 척추측만증 10대 가장 많아, 조기치료해야 합병증 예방

겨울방학이 한창이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실내 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며 그만큼 운동하는 시간이 줄기 마련이다. 하지만 겨울방학은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더없는 기회다. 키는 나이에 맞게 제대로 크고 있는지,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지, 친구들과 학업 스트레스는 없는지 등 살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척추측만증’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다. 전체 환자의 80~85%가 청소년기에 발견되고, 10대 환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척추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9만4845명 가운데 41.6%(3만9482명)가 10대(10~19세)로 가장 많았다. 일부는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깊게 관찰하지 않아 미처 치료되지 못하고 뒤늦게 성인기에 발견되기도 한다.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 1자, 측면에서 봤을 때 완만한 S자의 만곡형을 그린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척추가 틀어지고 휘어지게 되면 정면에서 볼 때 C자나 S자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때 10도 이상의 척추 변형을 척추측만증이라고 한다. 좌우 어깨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거나 한쪽 등이 튀어나왔다면 의심할 수 있다. 변형이 심한 경우 심장·폐 등 주위의 장기를 압박해 심각한 합병증까지 일으키기도 한다.

척추측만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특발성)가 전체의 85~90%를 차지한다. 주로 사춘기 전에 발생하고 여자아이에서 더 심하게 나

타난다. 통증 등 증상은 거의 없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사춘기까지 진행할 수 있다. 자칫 진단이 늦어지거나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되면 척추가 더 휘어지고 심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척추만곡이 더 진행되기 전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중 척추측만증이 있다면 평균 발생률(2%)의 10배 수준인 약 20%까지 발생률이 올라간다.

척추측만증은 초기에 만곡 각도가 낮을 때 발견하면 재활 치료와 보조기 등의 비침습적인 치료를 시행하지만, 각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아주 큰 각

도로 휘어진 상태에서는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평소 아이의 자세나 성장, 신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보조기나 척추 고정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경과와 전체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너무 심해지기 전 병원에 내원해 진단받고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심폐 기능 저하, 심한 비대칭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을 지연시키거나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다. 각별한 관찰이 필요하다.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2/12-2/16 → 전화 예약 필수!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의학 칼럼

51세 여성 환자가 사지의 이상 감각으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가만히 있거나 누워있을 때 두 다리 끝에서부터 별레가 스물스물 기어올라오는 느낌이 생기며 동시에 저리기 시작한다고 한다. 언제부터가는 저림과 동시에 시린 느낌이 팔다리 전체에 발생하였다.

환자의 증상은 밤이 되면 더욱 심해져서 이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다리를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잠을 잘 이루기가 곤란하였다.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니 낮에 매우 졸리고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낮 동안에 졸리는 것 외에도 직장 업무 중에 오랜 시간 자

에 앉았거나 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할 때에도 가만히 앉아 있기가 매우 괴롭다고 하였다.

밤에는 수면 부족, 낮에는 일상활동의 심각한 지장으로, 환자는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동시에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밤마다 다리나 손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져서 수면에 방해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자꾸 시리고 저리다.”

흔히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와 같은 증상은 이를 경

## 팔다리의 이상감각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겐 약간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단지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불행하게도 한 통계에 의하면 환자는 보통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이 생긴지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환자의 20 또는 30대에 증상이 발생하여, 50대 이후에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는 셈이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받기 이전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또한 중요한 사실로는 환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져 병자체가 진행된다고 하니,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 문의 :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건강 칼럼

## 표피 낭종

지난 시간에는 지방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종과 흔히 헷갈리는 종양 중 ‘표피 낭종’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진피, 표피로 나뉘어 있는 것 잘 아시죠? 표피는 피부에 가장 표면에 있는 층으로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피부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에서 나오는 때는 표피층 가장 바깥 쪽에 있는 각질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피는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피부 아래로 자리하게 될 때 표피 낭종이 생기게 됩니다.

표피 낭종은 피부에 상처가 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를 자주 밀면서 피부에 보이지 않게 상처가 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질적으로 표피 낭종이 몸 곳곳에 잘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음식과 상관없이, 어떤 요인과 상관없이 체질적으로 표피 낭종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표피가 진피층 아래로 파고들면서 표피 낭종 주머니를 형성합니다. 이 주머니 안에 케라틴이라는 물질이 차게 됩니다. 계속 많은 양의 케라틴이 차게 되면서 표피 낭종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피 낭종은 피부 아래 볼록하게 올라오는 종양입니다. 그것을 짜게 되면 케라틴 물질이 분비됩니다. 짜고 나면 볼록하게 올라온 것이 납작해지면서 마치 표피 낭종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낭종 주머니 벽이 그대로 있는 이상, 케라틴 물질이 계속 분비되고 다시 볼록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표피 낭종을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은 낭종 주머니 벽을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도려내지 않는 이상, 표



**장지아** 원장  
LA 장지아 일반 외과

피 낭종은 제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 표피 낭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입니다. 그러나 1%의 경우 악성 종양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는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환자분이 1%의 속할지 99%의 속할지는 확실하게 알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유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표피 낭종이 염증으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굉장히 아프며 심한 경우에는 표피 낭종이 터져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종기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부어 있는 피부를 절개하고 안에 있는 고름을 깨끗이 제거하고 소독하는 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응급 치료를 하고 나서 염증이 가라앉고 난 뒤, 표피 낭종 주머니 벽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도려내는 시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피 낭종 분비물이 없을 때는 피부가 볼록하게 올라오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낭종 주머니 벽의 조그만 조각이라도 남아 있으면 다시 표피 낭종형성되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염증이 생기기 전에 제거 시술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건강

## ‘고난도 시술’ 전체 임플란트 경험 풍부한 의료진 선택해야

나이 들수록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서 저작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육체적 건강을 잃게 된다. 씹는 저작 운동은 영양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뇌 신경 중에 안면신경과 설신경, 설하신경을 자극한다. 또 그 과정에서 두뇌 활동이 촉진된다.

반면 치아의 상실은 영양 섭취 부족과 두뇌 활동의 저하로 연결된다. 저작 기능이 저하되면 신경 활동 및 시냅스 형성이 떨어져서 신경세포가 감소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치아 보존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모든 자연치아를 평생 보존하긴 힘들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치아가 심각하게 파절되거나 강제 탈락할 수도 있고, 구강 조직에 발생한 질환이나 손상이 악화해 치아 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치아가 없어지면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저작하기 어려워지면서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겪게 될 수 있고, 영양분 공급 부족으로 신체 건강까지 악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소실된 치아를 대체해 줘야 한다. 다수의 치아를 수복할 땐 전체 임플란트도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고난도인 전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해야 한다. 부분 임플란트 수술과 전체 임플란트 수술은 아예 다른 수술이라고 봐야 한다. 부분 임플란트는 기존의 치아와 교합을 참고해 수술이 진행되지만, 전체 임플란트 수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합까지 고려할 수 있을 유능한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최준희** 원장  
LA세이프플란트치과

수술은 정량화된 스펙의 공산품이 아니다. 공산품은 품질이 일정해 최저가를 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은 다르다. 환자마다 수술 조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수술 재료로 시작하더라도 마무리까지의 수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노련하고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을 만나야 하는 이유다. 또 대부분의 어르신은 1~2개 이상의 전신 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의료진이 수술해야 합병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골다공증도 임플란트 수술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신 질환이다. 일부 골다공증약에서 약골 골수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정밀한 진단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턱뼈에는 많은 신경·혈관 등의 주요 구조물이 존재한다. 작은 오차로도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이 시너지를 발휘해야 완벽한 결과가 나온다.

결국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의료진이다. 단순한 가격 비교보다 어떤 의료진에게 수술받았는지 임플란트 수명에 훨씬 중요하다. 브랜드(임플란트)보다는 의료진의 선택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샐러모우 로드 유턴 센터(Inter+mar)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타빌 롯데/리아명(+mar)과 첼트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 애플 클래식 스트리밍 “CD로만 듣는다” 애호가 고집 꺾을까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 애플 스토어에서 연주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사진 애플 클래식]

한국에서도 지난달 24일 애플 클래식 서비스가 시작했다. 지난해 초 북미·유럽에서 시작한 클래식 음악 특화 서비스다. 지난달 29일 서비스 출시 행사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20)이 연주해 화제가 됐다. 기존 애플 뮤직 이용자는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은 그간 스트리밍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했다. 애플이 이런 상황을 바꿀까. 즉 까다로운 클래식 애호가들이 이번에는 스트리밍으로 돌아설까.

타이달(왼쪽)은 고음질이 특징이고, 애플 클래식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사진 타이달, 애플 클래식]

2017년 처음으로 스트리밍 등 디지털 매출이 CD 등 물리 매체에 앞섰다. 5년 만에 격차는 4배(국제음반산업협회 기준)가 됐다.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는 게 당연한 이 시대의 유일한 예외가 클래식이다. 진작에 사라져야 할 CD의 명줄을 잇는 링거 역할을 하는 게 클래식이다. 1982년 CD가 처음 등장한 이후 30여년간 여러 디지털 매체(DCC, DAT, MD 등)가 CD에 도전했지만 모두 사라져갔다. CD의 철옹성을 무너뜨린 건 어이없게도 초라한 음질의 MP3였다. 남은 성벽을 마저 무너뜨린 건 재생 매체가 아니라 휴대전화다.

휴대전화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클래식만이 홀로 CD에 집착한다. 이유는 역

시 음질이다. 클래식에 있어 MP3의 손실압축 포맷은 큰 걸림돌이다. 말리의 교향곡 8번 같은 대규모 관현악의 경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타나고, 고급 오디오에 연결하면 조악한 음질이 듣는 사람을 테러하듯 괴롭힌다. 초기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 MP3 기반이었기에, 클래식의 경우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등장한 무손실 압축 포맷인 FLAC은 CD의 WAV 포맷과 음질은 같은데 용량이 적어 소비자 요구에 잘 맞았다. CD 수준의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가 2014년 시작한 타이달(Tidal)이다. 국내에선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데도 우회 가입한 음악애호가 많다.

메이저 음반사 중심이던 시장 지형도 스트리밍 시대 들어 달라졌다. 디지털 음원은 누구나 상업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보니 음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오케스트라 등도 자체 레이블을 만들었다. 런던심포니, 베를린 필하모니 등 오케스트라 레이블이 탄생한 배경이다.

애플 클래식의 런칭은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이 모두 준비됐기에 가능했다. 다만 이용의 편의성은 별개 문제다. 클래식 데이터베이스(DB)는 복잡하다. 클래식 외의 장르는 곡·연주자 정보만 구별해도 충분하다. 하지만 클래식은 작곡가·곡·악장(곡의 작은 단위)·연주자(곡마다 다르고, 심지어 오페라는 수십명) 등을 구별하도록 DB를 설계해야 한다. 곡마다 악장을 나누는 방식도 달라 훨씬 다양한 조건 검색이 필요하다.

애플 클래식은 이 점에 있어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나은 결과를 제공한다. 예컨대 오페라의 경우 참여한 모든 연주자를 검색할 수 있고, 이름 클릭만으로 해당 연주자가 참여한 앨범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트랙별로도 참여 연주자를 구분했다. 또 독점 음원이 풍부한 것도 큰 장점이다. 아이폰이, 그간 고집해온 라이트닝 단자 대신 USB-C를 채택하면서 HiFi 오디오와의 연결성도 좋아졌다.

그렇다면 애플의 이런 노력이 한국의 클래식 애호가들을 스트리밍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여전히 문제는 있다. 취약한 유사어 검색과 빈약한 한글 검색 탓에 불편하다. 애플 클래식에서는 같은 곡인데도 표현하는 방식이 앨범에 따라 제각각이다. 애호가들의 CD 소유욕을 대신하기도 아직은 버거워 보인다. CD 소유를 대체할 방법은 다운로드다.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는 고음질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고, 앨범 단위로 구매하면 PDF 포맷의 디지털 소책자도 받을 수 있다. 애플 클래식은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는다.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나 라이브러리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음반의 역사에서 시장을 지배한 매체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매체가 아니었다. 유튜브 뮤직은 시장 지배자였던 멜론을 빠르게 제쳤다. 음질이나 검색 때문에 유튜브 뮤직을 선택한 사용자는 거의 없다. 유튜브를 편하게 보려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했는데, 유튜브 뮤직을 함께 쓰게 된 것이다.

이일호 음악평론가

# “엄마, 베이비 보톡스 맞고 싶어요” 안티에이징에 빠진 미국 1020세대

최근 영미권 8~12세의 ‘세포라 키즈(Sephora Kids)’ 사이에서 노화방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유행이다. 세포라 키즈는 세계 최대 뷰티숍인 세포라에서 화장품 쇼핑을 즐기는 10대 소녀를 뜻하는 소셜미디어(SNS) 용어다. 틱톡에서 ‘세포라키즈’ 해시태그(#) 누적 조회수가 3억회를 훌쩍 넘었다고 캐나다 CBC방송이 전했다.

주로 립스틱·아이세도 등 색조 화장품을 즐겨 찾던 세포라 키즈의 관심이 최근 노화 방지용 기초 화장품으로 옮겨갔다. 미 투자은행 파이퍼센더의 지난해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9200명을 조사한 결과, 스킨케어 제품 관련 지출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USA투데이는 “아이들이 스킨케어에 이처럼 집착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

다. 세포라에서 일하는 한 점원은 틱톡에 “열 살 아이가 성인용 스킨케어 화장품 900달러어치를 사려다 엄마에게 혼나 500달러어치만 샀다”고 했다.

이를 두고 CBC는 20억달러 넘는 자산을 보유한 유명 방송인 킴 카다시안의 딸 노스 웨스트가 지난 2022년 틱톡에 성인들이 주로 쓰는 스킨·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시 웨스트는 9세였다. 웨스트는 엄마로부터 미니 람보르기니(수퍼카), 샤넬·루이비통(패션 명품) 등을 선물 받았고, 어린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다. 이후 아이들이 성인용 스킨케어 화장품을 몇 개씩 사용하는 인플루언서 영상을 즐겨 찾아보게 됐다. 인플루언서들의 주름 없는 피부를 보면서



킴 카다시안 큰 딸 노스 웨스트가 지난 2022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스킨케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올렸다. [틱톡 캡처]

이런 화장품을 써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인식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영국의 피부과 전문의 안잘리 마토는 데일리메일에 “요즘 10대들은 조기 노화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피부과 전문의 엠마 웨지워스도 “어린이들이 자신의 피부를 인플루언서와 과도하게 비교하면서 정신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에게 필요한 피부관리 용품은 순한 세면용품, 가벼운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뿐이라고 지적했다.

“안티에이징(노화 방지)” 열풍은 20대에서도 뜨겁다. CNN은 지난달 20대 사이에서 얼굴 주름을 펴주는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게 유행이라고 전했다. 뉴욕포스트는 “틱톡에 #안티에이징 영상의 총 조회수가 79억회에 달하고, #

보톡스는 102억회, #주름은 24억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20대 여성들이 노화가 싫어 30대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영상이 많다”고 전했다.

미국성형외과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보톡스 등 주름 개선 주사를 맞은 20~29세는 3년전에 비해 71% 증가했다. 미국 성형외과협회 회장 스티븐 윌리엄스 박사는 “예방 차원으로 주름 없는 얼굴 부위에 맞는 ‘베이비 보톡스’ 시술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베이비 보톡스란 특정 근육이 아닌 진피층에 소량의 보톡스를 침투시켜 잔주름의 형성을 방지하는 시술이다. 1회당 최대 1000달러로 비싸지만 20대 사이에서 노화 예방 시술로 인기가 높다. 피부과 전문의 세린 이드리스는 “수십 년 동안 3~4개월마다 보톡스를 맞으면 젊은 나이에 얼굴 근육이 점점 약아지고 느슨해질 수 있다”면서 “노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무너지는 한국축구 감독 바꾸면 해결? 회장은 책임없나요

대한민국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 우승 도전에 실패했다. 1960년 이후 64년 만의 정상 탈환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건 아쉽지만, 엄밀히 말해 '4강'이라는 성적표의 액면가가 그리 낮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축구 민심은 활활 불타오른다. 정치인도, 연예인도 축구대표팀과 관련한 '따끔한 한마디'를 내놓으며 이 논란에 참여하고 있다. 대중의 분노는 일차적으로 사령탑인 윌트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을 향하지만, 그가 물러난다 해도 이 상황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시아컵에서 대한민국은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6경기나 치르는 동안 '아시아의 맹주'다운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할 경기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손흥민), '레바틴(레알 마드리드·FC 바르셀로나·바이에른 뮌헨의 줄임말. 유럽 최고의 축구클럽을 의미하는 조어)' 주전 센터백(김민재), 킬리안 음바페의 동료(이강인)를 모두 갖추고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다.

관리자형 감독 클린스만에겐 위기에 대처할 전술 능력이 부족했다. 그

2013년 축구협회장 맡은 정몽규 축구인 100인 기습 사면 논란 등 행정·경영·외교 등 모두 낙제점 내년 1월까지 임기, 4연임 도전 한국축구 발전 위해서 물러날 때

의 곁을 지키는 코칭스태프도 곁을 떠날 수 없다. 위기 상황과 맞닥뜨릴 때마다 만병통치약처럼 되뇌던 마법의 주문 '파이팅'은 결국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결승 진출에 실패한 직후부터 클린스만 감독 못지않게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KFA) 수장 정몽규 회장이다. 축구대표팀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이 손잡고 함께 물러나라"는 글이 홍수를 이룬다.

아시아컵 직후 가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클린스만 감독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임 당시 KFA와 함께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어쨌거나 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클린스만 감독

시아컵 결과(4강)에 따라 2년 6개월의 잔여 임기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니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악화일로인 여론을 비롯해 향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의 자리는 (KFA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다.

정몽규 회장은 다르다. 임기가 2025년 1월까지다. 체육계에서는 정 회장이 축구협회장 4연임에 도전할 것이라

는 설이 파다하다. 본인의 최대 치적이 돼야 할 천안축구중합센터 완공 시점이 자꾸만 뒤로 밀리는데, 정 회장 측은 "축구중합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아시아컵으로 불붙은 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지만 정 회장은 요지부동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 상황에 대해 책임

을 지려는 의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우울하다. 정 회장이 한국 축구의 핸들을 쥐고 있는 한, 현재의 혼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KFA의 수장직에 오른 이래 3선에 성공하며 12년째 한국 축구를 이끌고 있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세월 동안 이끌었으니 정상적이라면 KFA 내에 정 회장 체제가 자리를 잡고도 남았어야 한다. 아쉽게도 '정몽규호' 것발 아래에서 KFA는 연일 내려앉고 뒷걸음질 치기 바쁘다. 행정·경영·외교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낙제점이다. 지난해 3월 KFA가 프로 축구 승부조작 주범을 포함한 축구인 100인에 대해 기습적으로 사면을 강행하려다 여론과 정치권의 역풍을 맞아 결정을 뒤집은 게 대표적이다.

일부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한국 축구를 망치려고 적국에서 보낸 스파이'라 표현한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허탈한 기분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 거라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스파이'는 따로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우리 안에, 11년째 계속 말이다. 한국 축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감독뿐만 아니라 '그분'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축구스타들과의 사적 친분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지 않아도 얼마든지 쌓을 수 있다. 한국 축구 발전을 갈망하는 팬들의 입을 틀어막는 딱딱한 고구마. 그거 마이 무따 아이가.

홍재민 축구 칼럼니스트

## '골프 해방구' 선수·관객 잇단 충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WM 피닉스 오픈은 '골프 해방구'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골프 갤러리는 엄격한 관람 매너를 지켜야 하지만, 이 대회에서만은 음주는 물론 한성과 야유 모두 허용된다.

그런데 올해 들어 유독 사건 사고가 빈발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에는 16번 홀(파3) 관람대에서 관객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에 따라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 술 판매를 중단했고, 갤러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때 관객 입장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 대회를 잘 아는 베테랑 선수들도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이 여럿 포착됐다.

PGA 투어 12승의 잭 존슨(47)은 3라운드 15번 홀(파5)에서 관중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흥분한 존슨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입을 다물라"고 소리치고는 티박스를 떠났다.

투어 7승을 거둔 빌리 호설(37)은 같은 조 선수가 스윙할 때 한 관객이 소란스럽게 글자 "샷을 할 땐 조용히 하라. 샷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욕설을 섞어 말했다.

세계랭킹 1위 출신 조던 스피스(30)는 백스윙할 때 한 팬이 소리를 지르자 샷을 마치고 항의의 표시로 클럽을 땅에 던졌다.

골프채널은 "카메라에 잡힌 것만 이 정도"라면서 "일련의 상황은 '피닉스오픈의 파티 분위기가 너무 지나치진 않나'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짚었다.

골프위크는 "PGA 투어는 피닉스오픈이 재미있길 바라겠지만, 그 모든 재미가 파괴적인 비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선수 안병훈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모든 홀이 통제 불능이다. 샷을 하고 난 뒤 야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많은 사람이 치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다"면서 "수년간 여러 차례 이 대회에 출전했지만, 오늘 이전까지는 괜찮았다"고 토로했다.

## 김우민, 세계수영선수권 깜짝 금메달

박태환 이후 13년만에

김우민(22·강원도청)이 세계수영선수권에서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민은 11일 카타르 도하의 에스파이 어둠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3분42초7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끝냈다. 한국 수영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건 2007년 멜버른·2011년 상하이 대회의 박태환(3분42초04)에 이어 두 번째다.

김우민은 경기 후 "우승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첫 메달이 금메달이라 뜻깊고 뿌듯하다"며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 파리를 림픽(7월) 레이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결선 레이스를 마치고 기록을 확인한 뒤 기뻐하는 김우민. [로이테]

것 같다"고 밝혔다. 김우민은 2022년 6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처음으로 400m 결선(6위)에 올라 한국 수영 중장거리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배영은 기자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 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결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이저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0~80대 남성도 20대 초입의 건강한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5캡슐 1병 & 20캡슐 1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
- ▶ 강직도가 충분치 못하거나 일찍 풀리는 경우
- ▶ 비아그라를 먹어도 전혀 효과 없는 분께 특효
- ▶ 내성이 전혀 없는 자연 치유력 증진 효과 보장
- ▶ 여성이 너무 좋아하는 최고 강직도와 지속성

여자가 생각날 때 1캡슐만 복용하면 1시간 경과 후에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을 쳐다만 봐도 야릇도리가 분기맹전하는 강력한 남성기 발기력 개선 효과가 1주일 가량 지속되게 해주는 보약.

#백인 여성과 일본 여성들의 성생활 동영상 DVD #혼자여도 전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고, 혼자여서 되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싱글 남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위용품.

#69 전문가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우먼센스 오르가즘 젤™』 \$58 (100회용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입니다.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액액과 흡사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남녀 모두에게 미칠 만큼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아들아들하고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남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콧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는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주고, 단련시켜주는 천연 옥 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즘 장애 4주 만에 완성, 질 괄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O 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통한 링 테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O 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 5캡슐 1병 & 20캡슐 1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랄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팡팡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뜻깊은 남성들의 성생활 필수품 오리지널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만 연구적으로 사용) 말총처럼 가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할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Since  
1996

## 의료비 나눔 사역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CA와 NJ 지역의 CMM 회원은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vel 내용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unit	\$ 195	\$ 150	\$ 90	\$ 45
2units	\$ 365	\$ 290	\$ 180	\$ 90
3units	\$ 485	\$ 430	\$ 270	\$ 135
의료비 지원범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예방검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입원, 수술	입원, 수술
본인 부담금	\$500 /년	\$500 /건	\$1,000 /건	\$5,000 /건

\* 모든 Level에서 질병당 \$150,000까지 지원합니다.

11/2023 기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773-777-8889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CMM기독교의료상조회는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501(c)(3)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이며,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유사 단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 카툰 릴레이

#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불륜**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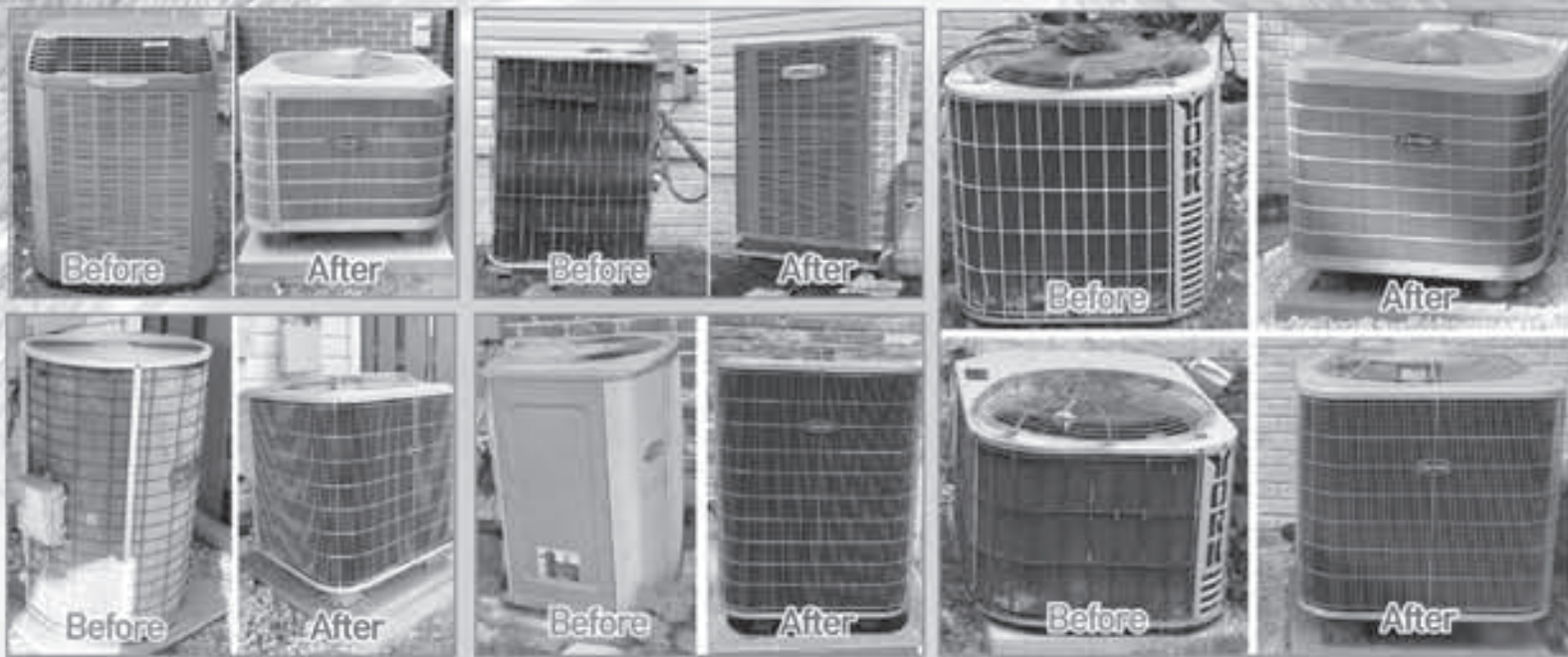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2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직원 구함**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풀/파트타임 가능  
▶ 영어 가능하신 분  
▶ 보험 라이센스 소지자 환영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f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센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양생활안내 Classified

중양일보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마케팅〉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터, 메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디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매퍼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애난데일 부동산회사-리셉션리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스폰가능  
ceo@hanmipost.com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물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림)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일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말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급휴가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국 또는 영문)  
phil9@jtbco.kr  
josephleejtbco@gmail.com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davidmarkslaw.com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서니스**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 페이스 마사지사  
월도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급휴가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토랑/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가능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메디칼**  
어시스턴트와 리셉션리스트 파트타임,  
풀타임을 구합니다. 703-505-0204  
mmaturimed@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vehandhomehealth.com

**MD Germantown]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풀/파트)  
본사는 MD Germantown에 위치한  
중형치과 기공사로 사세 확장을 위해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Accounting, Inventory, Order,  
Customer Care 등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분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으신분  
\*풀/파트타임 가능 \*경력자 우대 합니다.  
이메일 : confidential.hr@gmail.com  
전화문의 : 240-477-5683

**덴탈 어시스턴트 / 프론트 데스크 구함**  
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환영  
p : 410-480-5234 / 지역 : 엘리콧시티

**닥터오피스 프론트 직원 구함**  
풀타임, 한국어/영어, 컴퓨터 스킬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rcr@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Receptionist (Full 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휴선 (10 AM-  
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션리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추레이닝, 유급휴가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치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Cafe June 에서 풀/ 파트타임 샌드위치**  
싸실분, 유무경력자, 엘리콧시티  
443-310-9247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스프링필드(VA) 막창도둑 코린안 bbq**  
서버, 헤드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 1127

**Breakfast 주중/주말, F/P(\$20+tips/hr)**  
server 6am-2pm DC, CUA metro 근처  
703-785-8763

**애난데일 토속촌에서 웨치레스 구함**  
703-333-3400

**MD 포토맥 지역 뉴일식당**  
스시맨, 서버, 캐쉬어 풀/파트타임 구함  
703-405-7272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 모집**  
\*College Park Area, MD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핸디맨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POS 지원/  
Pricing Analyst/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r  
\*간단한 자기소개서는  
Email: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첼트리 Cafe Moment**  
금/토/일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Chantilly Cafe Moment looking for  
Fri, Sat, Sun afternoon part time.  
703-376-8090  
thecafemoment@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FOR SALE**

**Air Compressor**  
20 HP (22 volt)  
**\$1,800**

**Air Compressor**  
5 HP (22 volt)  
**\$1,000**

\* Air Compressor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58-6384**

① 워싱턴 중양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양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jumbo.food@gmail.com  
전화: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중앙일보**

캐시어 구함. 볼티모어 지역. 높은페이 델리 443-621-4951  
(구직) 허바치쉐프 파트타임 가능 443-620-4420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분 영주권 스폰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703-473-6022

###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4일 또는 2일 일하실분바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나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내 롬 렌트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 <세탁/엘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어에서 수선 및 개수어하실분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하실분(파타임) 엘리콧시 지역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지역 703-577-5866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커머셜 캐비닛 및 밀워 제작에 능한 팀원 모집 - 드로잉 이해가능, 코리안 카운터탑 경험자 - 높은페이, 평균이상 근무시간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 <기타 구인/구직>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경험자 우대. 숙식하실분. 410-961-301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분 구합니다. 이메일: joymiah0629@gmail.com

Mclean/Tysons, VA 아이들 하고 bus 도와 주고, 간단한 cooking, 운전 필수. Part time 718-309-4969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폴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버씨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가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 3735

밤10시부터 청소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첼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방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하실분 파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파크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고교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분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703-505-5211



###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우드브릿지타운홈 \$2,500 방3, 화2½, 1 Car Gag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Basement.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클리프톤, 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4, 전층 리모벨.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세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 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703-762-6759

즉시 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 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룸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애난데일 마트입구 콘도 렌트 방1, 욕실1. 발코니. 파킹2

11 월초 입주 가능, \$1,500 703-268-8669(처음은 문자문의 요함)

###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Fairfax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703-678-7833

NOVA, GMU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이노바병원 근처 단독주택 Walk-out 지하 전체 (입구 따로 있음) 방2, 목욕탕 2, 거실, 취사 가능, \$2,000(전기, 가스, 물, 인터넷 포함) 문의: 703-975-4989 (문자만 주세요)

애난데일 방 세 놓음 703-966-9597

MD 실버스프링 싱글 홈 이층 마스터베드룸 쓰실분. 가구·인터넷 완비, 한아름 10분거리, 넓고 조용함 240-543-6427

애난데일 방 렌트. 방에 욕실, 키친, 침대, 책상, 냉장고 완비, 개인 주차자리도 있음. 571-232-6052

실약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 출입문 별도, 간단취사, 금연자 571-243-6295

노스포토막,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2+Full Bath 571-830-4053

페어팩스 지역 GMU 걸어서 1분거리 2층 방 단독화장실 주방 주차면리 347-421-7894

단독주택 2층 큰방/주차/인터넷/ 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샤워실/29번과 198번 만나는 지점, Burtonsville, MD 20866 240-413-2738

애난데일 중심 싱글홈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703-606-0700

폴스처지 싱글홈 지하룸메이트 \$450 즉시 입주, 직장남자분 환영 571-224-3383

MD 저먼타운 싱글 2층 방1개, 침대, 가구 완비, 뉴그랜드마트 옆, 인터넷(유포) 301-538-1438

웨어옥스몰 근처 방 Rent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mr. 권(571)525-4220

페어팩스 50번도로 66도로사이 비엔나 전철역 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 환영 571- 530-7322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b>1 BOX</b>	<b>\$100</b>
<b>2 BOX</b>	<b>\$200</b>
<b>3 BOX</b>	<b>\$300</b>
<b>4 BOX</b>	<b>\$400</b>
<b>5 BOX</b>	<b>\$500</b>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애난데일 노바대학공원 옆 싱글홈 가구, 침대, 나무마루 등 모든 것이 갖추어진 깨끗하고 조용한 집, 방 1개/2개(욕실 별도), 학생, 직장인 환영  
문의: 703-336-3283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H마트 뒷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애난데일 H마트 옆, 방 1개 렌트 인터넷 및 가구 일체, 유포 \$800 직장 다니는 분 환영, 12월 중순 입주  
703-350-1986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커머셜 콘도 800sq 렌트합니다.  
571-237-3411

애난데일 한강위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 부동산 매매

###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난데일 콘도 \$200,000 방1, 화1, 745s.f., 계단없는 1층,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 넓은 리빙룸. New Siding Door. 폴댄지식당 옆 동네,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250,000 방2, 화장실 1, 리모델한 콘도, 938s.f. 넓은 리빙룸, 남향 밝은집, 나무마루, 새부엌, 새화장실, Elevator, New Windows, New HV/AC, H-Mart 근처  
▶703-477-3114

프레드릭스버그 타운홈 \$399,900 2019년 새단지 새집. 1 Car Garage, End Unit. 방3, 화장실 3½, 탁트인 구조. Walkout Basement, 밝고 환한집. 넓은 Deck, 파킹장 많으며 큰 호수가 있음.  
▶703-477-3114

맥클린 콘도 \$352,000 방1, 화장실 1. 962s.f. Many Upgrades, Newr Appliances, Newr HV/AC. Tyson's Corner 가까이.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703-477-3114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mart 옆 엘리베이터 있는 콘도. 방2, 화장실 2, 3월 귀국, 오피스급.  
703-350-1986

###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업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피스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애난데일 마트인 한층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424-6451

버지니아에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바람.  
703-582-8689

세탁소매매 Upper marlboro, 좋은장소  
703-850-3714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드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새해(2024년) 달력 판매 (벽걸이) 1Box= 100부 / 강아지그림. 가격: \$110.  
연락: 571-242-3736

해피라이딩 (bike riding) 평일 오후 / 도로와 휴길 / Wakefield park  
703-945-2991 (message)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민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 <중고품/기타 매매>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족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9,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쥬키 미싱 dll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SA, 4인용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스타(02) 아이언 7pec - 3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스타(08) 드라이버 / 3번 우드 - 4스타(07) 5번 우드 - 4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닛산 로그 2011년 Good 블랙, 191k, As is 판매가 900불  
443-956-9105 (문자 먼저)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여자 3스타 혼마 세트 2여행용 가방 1카트 가격조절가능 문자요망  
240-500-0035

남성골프채 DRIVE 1) 일제 KAMUI ASIRI 고반발 Gold 10도 / R \$600 2) PXG 0811x+PROTO 10.5도 / R \$170  
301-717-7960

물만 필요한 저렴한 낚시대 세트 \$10 연한 베이비바탕 디자인 그라나이트 2' x 2' \$45 / 2개 \$80  
703-268-8669

은퇴로 덴탈랩 장비와 재료 총 \$500  
240-423-9968

###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 <냉동 & 히팅>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 <보석>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 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티밍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시,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 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 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 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0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전기 공사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 마이클 장

-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터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mailto: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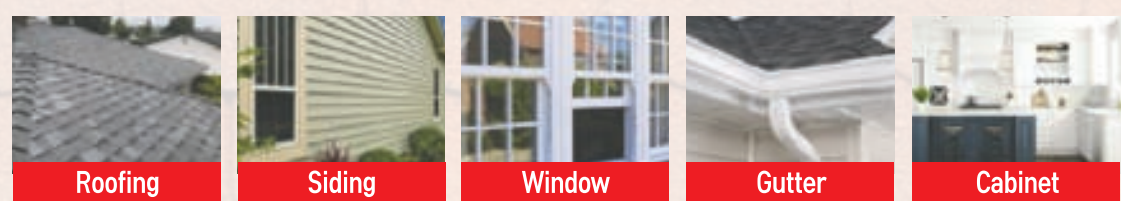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http://www.myroofersusa.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Eve: Good morning Delores.  
이브: 안녕 들로리스.  
Delores: What's so good about it?  
들로리스: 뭐가 그리 안녕해?  
Eve: You don't look so hot. Are you okay?  
이브: 너 기분이 안 좋아보인다. 괜찮니?  
Delores: I had trouble sleeping. I was tossing and turning all night.  
들로리스: 잠은 못 잤어. 밤새 뒤척거렸거든.  
Eve: What was wrong?

이브: 왜?  
Delores: I think it was something I ate for dinner.  
들로리스: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봐.  
Eve: Really?  
이브: 정말?  
Delores: I think I had bad fish.  
들로리스: 상한 생선을 먹은 것 같아.  
Eve: That's terrible.  
이브: 어머 세상에.  
Delores: I might make it a short day today and go

home early.  
들로리스: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갈까봐.  
.....  
**기억할만한 표현**  
▶ (one) doesn't look so hot: 컨디션이 별로 좋아보이지 않으니네오  
"What's the matter with Susan. She doesn't look so hot."  
(수전이 왜 저럴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보이는군요.)  
▶ bad (fish): 상한 (생선) 음식

"I had bad chicken last night."  
(전 어제 상한 닭고기를 먹었어요.)  
▶ make it a short day: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다  
"I have to make it a short day because I have to go to the airport."  
(공항에 가봐야되기 때문에 전 오늘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야겠어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 아버지의 친형제자매의 아들이나 딸과의 촌수 (2) 삼중주 또는 삼중주 (4) 무의 앞과 즐기 (5) 큰 나무들이 뻗뻗하게 들어선 깊은 숲. 정글 (6) 간장, 된장, 술, 초, 김치 따위 물기 많은 음식물 겉면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물질 (7) 옆으로 짝 퍼지게 끼얹는 물 (9)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연히 내세우는 구실. 잘못된 일에 대하여 구차스럽게 말하는 변명. 이것 없는 무덤 없조 (10)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남이 가지게 된 뒤에서 조금 얻어 가지는 공것 (13) 안으로 욱게 난 이를 가진 사람. 곱슬머리에 ~하고는 말도 많았다 (15) 일이 뜻대로 잘될 때,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 (18) 자기의 생활이나 체면을 직접 쓴 기록 (20)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함 (21)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 다음가는 성직 (23) 손가락 끝에 종기가 나서 굵은 병 (24) 88세 (25)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한 쌍의 더듬이, 세 쌍의 다리, 두 쌍의 날개가 있다 (26)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27) 글방

**세로 열쇠**

(1) 핀란드식의 증기 목욕 (2) 위 속의 가스가 입으로 북받쳐 나오 (3) 살, 가죽, 뼈가 모두 암자색인 닭. 깃털은 보통 흰색이나 검은색, 적갈색도 있다 (4) 하늘에 나타나는 반원의 색동 띠 (5) 바닷물이 밀려와서 해면이 높아지는 현상 (8)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승려 (9) 탁구 (11)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함 (12) 차량을 넣어 두는 곳 (13) 세계 3대 작물 중의 하나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량 작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 일부 나라들로, 세계적으로는 ~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훨씬 많다 (14) 남자 무당 (16)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 (17) 꽃이나 푸성귀, 돈 따위의 묶음 (19)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 먹고 사는 벌레 (20) 손자의 아들 (21)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임 (22)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서,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집이나 방 (24) 낚시 끝에 꿩은 물고기의 먹이

**스도쿠**

		4	9					
	9			8	2		6	
2		8	6				5	
7		5					1	
	1						8	
	4					7		2
		6			5	3		9
	2		1	3			4	
					8	1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9	7	1	8	6	2	3	5	4
4	8	9	3	7	1	2	7	6
4	5	6	4	5	3	2	9	1
2	9	3	2	7	5	6	4	8
8	4	6	3	6	1	7	5	2
6	1	2	7	5	4	9	8	3
3	6	1	2	7	5	4	9	8
7	3	5	8	2	9	6	1	4
2	7	8	6	4	3	5	9	1
3	6	1	2	7	5	4	9	8
5	6	4	9	1	7	2	3	8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기타 지역

하숙·렌트 구인

**고급 노인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방장고압비  
 Income Limit (색선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스시맨/주방국**  
 숙식제공, 조지아주 지역  
 (646)229-2708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가 채용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이메일 주시길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리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http://funding1234.com)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mailto: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Partial & Denture**  
 풀타임, 초보자 환영  
 N.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항흥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mailto: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 샵**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가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기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약 산삼음욕단 도인력사당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2024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봄학기 개강 3월 19일**

**본교 지원시 특전**

-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92CHICKENUSA.COM

**92 Chicken KOREAN STYLE**

치킨, 핫도그, 떡볶이, 소스, 정제박스, 도매, 미국전지역

**창업주 모집!!!**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를 모집합니다.

✓가맹비 없음!!!! ✓로열티 3년 없음!!!!

식당자리 구함 / 부동산 환영  
 현 90개 매장 오픈 현황중!  
 문의하시면 컨설팅 해드립니다.  
 E2비자 가능합니다.

**92 K-CORN DOG**

문의: 770-769-7575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미전역 좋은자리 찾습니다



MD, DC, VA

#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